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2019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2019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2019 거리예술 서커스	Chapter 1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06
창작지원 사업	Chapter 2	2019 창작지원 — 리서치 [거리예술] 꼬이다, 풀리다 무임승차 리서치 프로젝트 : 온 더 무브 아마도 여기(가제)	[서커스] 극동아시아땐스 우주비행선 Cyr Wheel 서커스 아일랜드 코사인 그래프 퓔더씨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	08
	Chapter 3	2019 창작지원 — 제작 [거리예술]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향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정당한 영광: 두 번째 삶 돌, 구르다 서울탈춤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풍정,각(風情,刻) 장안평	[서커스] SKY 텐트 해너 우주고래	32
	Chapter 4	2019 창작지원 - 국제공동제작		6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Chapter 2	2019 창작지원 - 리서치		08
	[거리예술] 꼬이다, 풀리다 무임승차 리서치 프로젝트 : 온 더 무브 아마도 여기(가제)	[서커스] 극동아시아땐스 우주비행선 Cyr Wheel 서커스 아일랜드 코사인 그래프 필더씨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	
Chapter 3	2019 창작지원 - 제작		32
	[거리예술]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향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정당한 영광: 두 번째 삶 돌, 구르다 서울탈춤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풍정.각(風情,刻) 장안평	[서커스] SKY 텐트 해녀 우주고래	
Chapter 4	2019 창작지원 - 국제공동제작 [거리예술] Waking the Witch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이 생각나)		60
Chapter 5	2019 창작지원 - 서커스 상주형 FORCE 봉앤줄		66
Chapter 6	[2018]		72 74 80 85 89 94
Appendix.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안내		98

2019	Chapter 1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SACC	<i></i>	- 06
Support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upport		Support for creative project in street arts & c	ircus	
for				
Creative	Chapter 2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 Rese	earch —	- 08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S	[Street Arts] Twist and Unite Free Ride Research Project: On the Move Maybe Here(Working title)	[Circus] Far Eastern Dance Spacecraft_Cyr Wheel Circus Island Cosine Graph Feel the Sea Contemporary Meister: A Research on Everyday Life Circus	
	Chapter 3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 Prod	ducing ————	- 32
		[Street Arts] Neither from nor toward Human Seller Recruitment Dance of Oblivion_ 4,16 Seoul tour bus of Oblivion Righteous Glory: The Second Life Rock, Rolling Seoul Talchum 3 hour to 3 hour / 4 hour to 4 hour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Janganpyeong	[Circus] SKY Tent HAENYEO A lonely whale in the space	
	Chapter 4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 Inte [Street Arts] Waking the Witch When it rains, (I feel like eating Jeon)	rnational co-production ————	- 60
	Chapter 5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 Circ FORCE BONG n JOULE	us residency	- 66
	Chapter 6	2014–2018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 72
	_	[2018]		- 74
		[2017]		80
		[2016]		85
		[2015]		- 89
		[2014]		94
	Appendix.	Introduction of Seoul Street Arts Creation	n Center ————————————————————————————————————	- 98
		Venues		
		Programs		

2019

서울 거리예술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2015년 4월, 40여 년의 산업시설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거리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거리 에서 활약할 예술가를 키워내며. 거리의 문화를 고민하는 거리예술 및 서커스 베이스캠프로 개관하였다.

창작센터는 작품이 연중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축제 및 도심의 공공공간에서 공연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거리예술과 서커스 장 르의 저변 확대와 예술가 대상 재교육 및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거리예 술과 서커스를 보다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창작 및 배급, 전문가 양성과정의 다변화, 실용적인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거리예술 및 서커스 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완공 및 개관한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내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거리예술 및 서커스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한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거리 곳곳에서 펼쳐질 다양한 작품과 예술가들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거리낌 없이 예술을 만나게 하는 국내 유일 거리예술 및 서커스 실험장으로서 역할하려고 한다.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은 창작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던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거리예술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거리예술은 국내에서 인식이 넓지 않은 상황이라 예 술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는데. 창작센터의 창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도심 공공공간 의 거리, 야외공간 및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예술로 서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창작지워 사업은 다각적 지원을 통해 작품 계발 기회 제공 및 수준 높은 거리예술을 육성하고, 다양한 발표 공간(국 내외 축제 및 도심 공간)에서 공연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 예술 작품 발굴, 서커스 공연단체의 개발 등 거리예 술의 다양성 확대와 영역 확장을 위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지원한다. 또한 거리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활성 화 및 대중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거리예술 특성에 맞는 창작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거리극, 거리무용, 서커스,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거리예술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이 연중 제작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작, 홍보, 연습 공간 지원 및 비평 등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지원 사업이다.

현재 창작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작지원 사업은 거리예술 창작지원과 서커스 창작지원 두 분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으며 신작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다. 창작지원 사업으로 2014년 총 7개의 작품, 2015년 6개의 작품, 2016년 거 리예술 7개, 서커스 2개 작품, 2017년에는 거리예술 6개, 서커스 3개, 2018년에는 작품 제작을 위한 리서치 과정에 있으면서 차년도 신작 발표가 가능한 단체를 지원하는 '리서치지원'이 신설되었으며, 거리예술 11개, 서커스 3개 작 품이 선정되어 도심의 거리 및 공원 등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2019년은 '제작지원'과 '리서치지원' 외에 새롭게 '국제공동제작지원'과 '서커스 상주형지원'이 개설되었다. '국제공 동제작지원'은 국내 예술단체 중 해외 예술가와 협업 및 사전활동 준비단계를 거쳐 신작 창작을 계획 중인 단체를 지원하며, '서커스 상주형지원'은 서커스 장르 공연 레퍼토리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단체 중 서울거리예술창작센 터를 거점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아갈 국내 서커스 예술단체를 다년간 지원하는 분야다. 올해 리서치지원에는 총 10개 단체(거리예술 4개, 서커스 6개), 제작지원에는 총 12개 단체(거리예술 9개, 서커스 3개), 국제공동제작지 원에는 총 2개 단체(거리예술), 서커스 상주형지원에는 총 2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After completing its mission as an industrial organization for 4 decades, SSACC, founded in April 2015, pursued its vision to serve as a base camp for street arts and circus performances through consistent support for creative artists

The programs run by SSACC include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which discovers street arts and circus performances that can be performed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estivals and in public areas, and 'Fostering Professionals', a program designed to expand the boundaries of street arts and circus performances, re-educate established artists and discover emerging artists, SSACC also operates 'Education on Arts', intended to give citizens easy access to street arts and circus performances, as well as 'Promotion of Exchange and Networking', designed for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arts, diversification of established artist education, and practical information sharing

SSACC is the only institute in Korea which continues to study street arts and circus arts and archive related data and plans to exten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the fields of street art and circus performances based on a residency program at SSACC, which was newly developed and launched in 2019

SSACC strives to serve as the one and only venue in Korea where people can enjoy street arts and circus performances on nearly every street corner, through its constant support for a variety of artworks and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SACC) began support for Creation of Street Arts in 2014, the first program in Korea to support creative street arts and artists. The program is part of SSACC's longterm effort to promote street arts (which have suffered from a lack of government support due to their unfamiliarity), thereby providing citizens with easy access to a wide range of creative arts in public areas such as streets and outdoor venues.

In its endeavors to diversify and expand street arts, the program is committed to supporting a variety of innovative and creative works through the promotion of artwork development, high - quality street arts, discovery of street arts that can be performed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estivals, and the development of circus performances. The Center will continue to help increase the popularity of street arts and raise people's awareness through customized assistance, A rich variety of creative arts, including street arts, performance, and circus & visual arts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is comprehensive program which is helping to create a healthy art ecosystem and supports production, marketing, performance areas and critical reviews.

The creation center supports creation projects under two categories: street arts creation and circus creation. And the support is mainly aimed at new work. Seven artworks were selected for the support project in 2014; six in 2015; seven street artworks and two circus performances in 2016; and six street artworks and two circus performances in 2017. In 2018, a research support program was newly launched to support organizations that were in the process of research to create art that can be presented next year, and 11 street arts and three circus performances were selected and presented in the streets and parks in

In 2019, an international co-production support program and a circus residency support program were newly launched in addition to production support and research support programs.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 support program supports domestic artists who are planning collative work with international artists through a preparing stage including cooperation and advance activities, and the circus residency program provides years of support for domestic circus arts groups with repertoires of two or more circus acts to help them broaden their boundaries using SSACC as their base. This year, two street arts groups and two circus groups were selected for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 support program and the circus residency support program, respectively.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리서치 [거리예술]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RESEARCH [STREET ARTS]

- 꼬이다. 풀리다
- 무임승치
- 리서치 프로젝트 : 온 더 무브
- 아마도 여기(가제
- Twist and Unite
- Free Ride
- Research Project: On the Move
- Maybe Here(Working title)



꼬이다. 풀리다

창작중심 단디 | 2019



꼬이고 풀리는 우리의 삶

'창작중심 단디'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꼬이다. 풀리다〉는 기존 벽과 허공을 이용한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줄을 이용 한 공연이다. 두 줄 혹은 세 줄이 서로 교차해서 만들어 낸 다양한 움직임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의 삶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움직임 공연을 지속적으로 창작할 계획이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창작중심 단디

인간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바람은 미래에 대한 도전과 응전을 포기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도전과 응 전의 의지에는 개인을 포함한 우리의 어우러짐의 미학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시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미적 자의식이 내포되 어 있다. '창작중심 단디'는 인간의 다른 내면을 되비추고 반영하는 자유의지와 창의적인 예술성을 지향한다. 또한, 인간의 신체와 줄이라는 감각적인 소재를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적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대표 황성탁 | 010-7158-7692 | cre dandi@naver.com

Twist and Unite

CREATIVE DANDI | 2019



The tangling and untangling of our lives

Newly unveiled by Creative Dandi, (Twist and Unite) is a performance presented using ropes unfurled across the floor, unlike the group's other performances, which use walls and the air as the main stage. The various movements expressed using two or three intertwined ropes bear resemblance to the complex tangle of human lives. Dandi will continue to create performances with various movements focusing on such resemblances.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Creative Dandi

The human dream of soaring through the sky and the desire to travel to a new world make it impossible to give up on our challenge and struggle toward the future. This determination to challenge and struggle encompasses our aesthetic awareness of using body movements to express the aesthetics of mingling to include each individual and to create new space and time. Creative Dandi pursues free will and artistic integrity to reveal and reflect other internal aspects of human beings. Furthermore, using the human body and ropes, the group tirelessly strives to achieve artistic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to deliver new sensibilities and meanings.

President Seongtak Hwang | +82-10-7158-7692 | cre_dandi@naver.com

무임승차

창작집단 미아 | 2019



2050년 (주)미아스마트택배 직업체험 〈무임승차는 가성비 최고의 노인복지!〉

지하철 택배의 선구자 ㈜미아스마트택배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활용하여 독보적인 산업적 이익을 창출한다. 이번 홍보 주간은 ㈜미아스 마트택배의 작동 원리부터, 역사, 수익 구조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나아가 현재 지하철 택배의 생태와 주요 쟁점, 이와 관련한 ㈜미아스마트택배의 비전도 공유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지하철 출구에 설치된 ㈜미아스마트택배 홍보부스에서 그간 ㈜미아스마트택배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본사의 일자리 창 출 능력에 관심 있는 미래의 일꾼들에 한하여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하철역을 오가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선 배들의 흔적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창작집단 미아

창작집단 미아는 극장 안팎을 넘나들며 공연을 만들고 있는 단체이다. 공연예술에서 극장의 역할을 질문하고 창작자와 관객의 고정된 경계 를 허물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작으로는 〈우리의 삶을 전시합니다〉, 〈무례한 미아의 이동좌담회〉, 〈우리의 삶을 전시합니다: 현타대장 편〉, 〈무리한 미아의 이동좌담회: 역할놀이 편〉이 있다.

미아의 우당탕탕 여정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mia the creative

대표 백소정 | 010-8464-3266 | thwjd7664@naver.com

Free Ride

CREATIVE MIA | 2019



Mia Smart Courier Service's job shadowing experience in 2050.

"The free ride program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 pioneer in subway courier services, Mia Smart Courier Service Inc. uniquely generates profit through the free riding system for seniors. This promotional week has been arranged for participants to explore Mia's business model, revenue structure and history. Furthermore, the company will share its view on the current ecosystem of the subway courier industry, main issues, and Mia's vision in the industry.

Participants are able to examine Mia's achievements at its promotional booth, which is set up at a subway exit. Furthermore, prospective employees who are interested in Mia's job creation capacity can take part in a job shadowing experience, while looking around the subway stations to see and listen to the traces left behind by their predecessors.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Creative MIA

Creative Group Mia performs inside and outside of theaters. Questioning the roles of theaters in performing arts, the group strives to knock down the barrier between creators and the audience. Its previous work includes (Let Us Present Our Lives>, (Disrespectful Mia's Mobile Symposium>, (Let Us Present Our Lives: Captain Hyeonta).

Check out the Instagram page @mia_the_creative for more of Mia's delightful journey.

President Sojeong Baek | +82-10-8464-3266 | thwjd7664@naver.com

리서치 프로젝트 : 온 더 무브

시적극장 | 2019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전환

'시적극장'의 〈리서치 프로젝트: 온 더 무브〉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극장이나 역사적 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기존 작업 방향에 대한 리마인드와 함께 거리와 광장이라는 유동적 공간에서 설치극장 (Installation Theatre)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시적 순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 과정을 웹 기반 아카이브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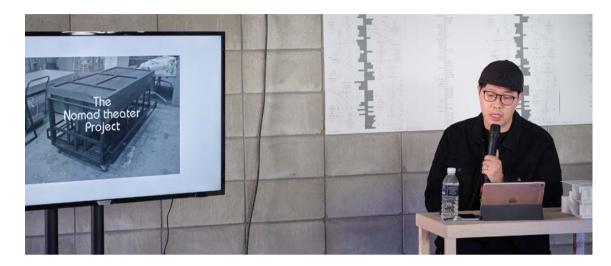
시적극장

'시적극장'은 무대 미술가 신승렬과 김혜림, 매체 음악가 박승순, 사운드디자이너 베일리홍, 드라마투르그 전강희로 구성된 창작 그룹으로, '무대와 음악/사운드' 중심의 극적 언어를 탐색하고 있다. 획일화된 일상 속에서 시적인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상상/해방 공간'을 설치극장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대표 신승렬 | 010-4121-8698 | tldtnd98@naver.com

Research Project: On the Move

POETIC STUDIO | 2019



Transformation from a closed space to an open space

Poetic Studio's 〈Research Project: On the Move〉 covers the topic of transformation from a closed space to an open space. Its web-based and offline exhibitions are not only reminiscent of the group's previous work, which mainly revolved around theaters and historic spaces, but also show the process of research on ways to compose "installation theater" in the streets or town squares with a floating population and the kinds of poetic moments that can be created along the way.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POETIC STUDIO

Poetic Studio is a creative group consisting of stage artists Seung-ryul Shin and Hye-rim Kim, media musician Seung-sun Park, sound designer Bailey Hong, and dramaturg Gang-hui Jeon, which focuses on theatrical language based on stage, music and sounds. It builds "imaginary and liberating spaces" in the form of installation theater, through which people can witness poetic moments in their routinized daily lives.

President Seungryeol Shin | +82-10-4121-8698 | tldtnd98@naver.com

아마도 여기(가제)

갈매 | 2019



또 한 번 바뀌었지만 또다시 변하지 않은 오늘을 나는 살고 있다.

사회적 몸의 가능성과 한계를 경험한 이후의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 한 번 바뀌었지만, 또다시 변하지 않은 오늘을 나는 살고 있다. 내일은 여전히 희미하다. 〈아마도 여기(가제)〉는 2020-21년에 완성할 '갈매'의 두 번째 창작품이다. 이번 2019 싹 브리핑 발표에서 〈아마도 여기(가제)〉의 창작 초기 단계를 공유하고자 한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21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갈매

'갈매'는 공공장소를 기반으로 창작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마르세유에 소재한 거리예술 전문교육기관 페아(FAI-AR, Formation supérieure d'art en espace public)를 졸업한 한국의 젊은 연출가 이주형이 2017년 창단하였다.

대표 이주형 | 010-4217-0255 | ciegalmae@gmail.com

Maybe Here(working title)

GALMAE | 2019



I am living a today that has changed once before but will not change again.

What do I need after experienc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 social body? I am living a today that has changed once before but will not change again. Tomorrow remains dim. (Maybe Here (working title)) is GALMAE's second work that will be completed in 2020 or 2021. At the SSACC Briefing 2019, GALMAE will share its first creative step.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21

GALMAE

GALMAE is a performing arts group whose creative activities are based on public places. It was founded in 2017 by a Korean young director named Ju-hyeong Lee, who graduated from Formation supérieure d'art en espace public (FAI-AR), an educational institute based in Marseille, France that specializes in street arts,

President Juhyung Lee | +82-10-4217-0255 | ciegalmae@gmail.com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리서치 [서커스]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RESEARCH [CIRCUS]

- 극동아시아땐스
- 우주비행선 Cyr Wheel
- 서커스 아일랜드
- 코사인 그래프
- 퓔더씨
-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
- Far Eastern Dance
- Spacecraft Cyr Wheel
- Circus Island
- Cosine Graph
- Feel the Sea
- Contemporary Meister: A Research on Everyday Life Circu



극동아시아땐스

들꽃체육관 | 2019



동북아 캬바레 여성들의 춤과 노래

동북아가 급격하게 개방되던 시절, 서양의 캬바레 문화를 각양각색으로 받아들였던 한국, 중국, 일본. 급변하는 사회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여성상을 고수했던 동경의 캬바레와 한국전쟁 직후 살아남기 위해 미군의 입맛에 맞는 공연을 선보였던 서울의 캬바레 그리고 오랜 무역의 역사로 스며든 서양의 쇼 문화에 자신들만의 색깔을 입혀 상업적으로 활용했던 상해의 캬바레.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여성들의 모습을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느닷없이 보여준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들꽃체육관

들꽃체육관은 1인 서커스 예술가로 에어리얼 후프, 에어리얼 실크 등 공중곡예를 기반으로 한 서커스 창작자 및 실연자입니다.

대표 이수연 | 010-2661-1707 | gymcot@gmail.com

Far Eastern Dance

MUSCULAR FAIRY | 2019



Dance and songs of female cabaret performers of Northeast Asia

At a time when Northeast Asia was rapidly opening up to Western culture, Korea, China and Japan adopted Western cabaret culture in various ways. Tokyo's cabarets adhered to the conservative image of women in spite of the drastically-changing society; Seoul's cabarets presented performances that suited the tastes of the American military as a means of sustenanc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and Shanghai's cabarets, as Western culture had long permeated into Chinese culture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dded their own color to Western show culture as a commercial tactic. The performances of the women who once danced and sang in such establishments are now abruptly unfolding amid the scenes of everyday life among people of the modern era.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Muscular Fairy

Muscular Fairy is a circus artist who creates and performs a circus based on aerial acrobatics including aerial hoop and aerial silk choreography.

President Suyeon Lee | +82-10-2661-1707 | gymcot@gmail.com

우주비행선 Cyr Wheel

휠러스 | 2019



마른하늘에 우주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시작하는 하루, 모두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위치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시작한 청소부의 눈앞에 우주선이 나타났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청소부는 우주선(cyr wheel)에 올라타 꿈에 그리던 우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휠러스

서커스 오브제 씨어 휠(Cyr Wheel)과 드라마의 만남. 여러 가지 실험정신을 가지고 씨어 휠을 사용하여 공연을 선보이는 단체이다.

대표 이민영 | 010-9977-7247 | minyoung724@hanmail.net

Spacecraft_Cyr Wheel

WHEELERS | 2019



A UFO in the clear sky?!

One ordinary day that began the same as usual; everyone wakes up early in the morning to start the day in their own roles. All of a sudden, a UFO appears before a cleaner, who started the day earlier than others. Hoping to escape from reality, the cleaner hops into the UFO and embarks on a journey through outer space.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Wheelers

An encounter between a circus object—Cyr wheel—and drama. The group showcases experimental performances using the Cyr wheel,

President Minyoung Lee | +82–10–9977–7247 | minyoung
724@hanmail.net

서커스 아일랜드

마린보이 | 2019



섬 소년 마린보이가 만든 섬을 닮은 극장

서커스를 처음 시작했던 무렵부터 꿈꾸었던 나의 서커스 텐트는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구조물 제작 워크숍 '기둥 없는 서커스 텐트'로 모델링이 되었고, 이후 꾸준히 구조를 연구하고 고민하였다. 공중에 많은 장치들과 아티스트들이 매달려도 될 만큼의 안정성을 갖추고, 자연을 담을 수 있는 (비, 바람, 눈, 구름 등) 상상 가득한 극장이 되길 바란다.

#극장공연과거리공연사이에어딘가 #대안극장 #유목 #자체전력 #태양광발전 #충전식극장 #자연을담은 #서커스텐트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마린보이

남도의 작은 섬에서 자란 바다 소년 '마린보이'는 2003년 서커스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많은 작품을 만들어왔다. 수제작으로 만든 작은 미니 자동차부터 뱃고동 소리가 나는 장치, 폐지 줍는 할머니 로봇(작품〈고물수레〉) 등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낸 장치들로 작품을 만들어 관객과 소통해왔으며,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중이다.

대표 이성형 | 010-9186-0045 | marineboycirus@gmail.com

Circus Island

MARINEBOY | 2019



An island-like theater made by island-child Marin Boy

My own circus tent, which I had dreamed of since I first started circus, was modelled as "a circus tent without pillars" in the installation art workshop at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in 2015, and since then, the structure has become a matter of research. I hope the theater is secure enough to hold any aerial devices and artists in the air and imaginative enough to incorporate nature (rain, wind, snow, clouds, etc.).

#somewhere_in_between_theater_and_street #alternativetheater #nomad #autonomouspower #photovoltaicsystem #rechargeabletheater #naturecontained #circustent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MarineBoy

Marin Boy, who grew up on a small island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has produced numerous works over the past 16 years since he started circus performances in 2003. Designing and making devices including hand—made minicars, a device making a foghorn sound, and an old lady robot picking up scrap paper, he communicates with people via devices manufactured directly and asks questions about the world at the point where art and technology meet.

President Sunghyung Lee | +82-10-9186-0045 | marineboycirus@gmail.com

코사인 그래프

64J | 2019



코사인은 어디에나 있다.

접근성이나 효율 면에서 이점을 살려 슬랙 로프 및 와이어와 거리공간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였다. 다양한 공간의 구조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슬랙 로프 및 와이어를 이용한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자생할 수 있는 공연'의 전 단계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한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64J

64J은 64kg의 물체를 1m/s로 1m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대표 박상현의 변하지 않는 몸무게이기도 하다. '신체를 중심으로 공 연을 만들 때 64J의 일=움직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또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 그리고 기예를 위한 설치 등에서 오는 제약을 즐거운 상상을 통해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단체이다.

대표 박상현 | 010-7567-0707 | chopacho13@gmail.com

Cosine Graph

64J | 2019



Cosine graphs are everywhere.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a slack rope or wire and a distant space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64 J conducted research using slack ropes, wires and various spatial structures in order to showcase the pre-performance stage where the performance can be self-sustainabl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64J

64 J is the amount of energy exerted to move an object of 64 kg for a distance of one meter at 1 m/s, and 64 kg is body weight of Sang-hyeon Park, the leader of the group. The group was founded on a question: How can the formula of "64 joules of exertion = movement" be used efficiently to its full potential when creating a performance based on the human body? The group dismantles limitations creates something new from certain spaces and installations used for acrobatics through their joyful sense of imagination

President Sanghyun Park | +82-10-7567-0707 | chopacho13@gmail.com

퓔더씨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 2019



표류를 느끼고 항해를 떠난다.

쇼케이스로 선보일 〈퓔더씨〉는 리서치 과정에서 만들어낸 행위와 사운드, 이미지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바다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인생 의 과정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관객은 각자 스스로의 삶의 과정을 대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화이트 큐브(White Cube)'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상자를 뜻한다. 또한 '화이트(White)'는 '새로운 시작'을 '큐브(Cube)' 는 '분해, 조립, 재구성, 호기심'을 의미한다.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White Cube Project)'는 호흡과 타이밍, 감정표현과 움직임, 사물과 신 체의 구성을 모토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해 항상 도전하는 단체이다. 춤, 연기, 음악, 빛, 구조물, 서커스 등 여 러 가지 요소를 흡수, 변형,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극장 및 실내외 특정 공간을 활용한 여러 유형의 공 연을 만드는 단체이다.

대표 정성태 | 010-4730-8352 | fallin dance@hanmail.net

Feel the Sea

WHITE CUBE PROJECT | 2019



Embarking on a voyage from a sense of being adrift.

Unveiled in its first showcase, (Feel the Sea) will remind the audience of the ocean through the movements, sounds and images created during its research process. It is a metaphor for life as a sailing voyage across a boundless open sea.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relate the work to their own lives.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White Cube Project

White Cube refers to a box that continuously arouses interests toward new things at all times. At the same time, "white" also represents a "new start" and "cube" symbolizes "disassembling, assembling, reconstructing and curiosity." The White Cube Project creates movements using breathing, timing, emotional expressions, motions, formations of objects and bodies, and undertakes continuous challenges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Absorbing various components including dance, acting, music, structures and circus, the group transforms and restructures them into intriguing new content and stages different types of performance art in theaters and various indoor and outdoor spaces.

President Sungtae Jung | +82-10-4730-8352 | fallin_dance@hanmail.net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

프로듀서 그룹 도트 | 2019



일상에서 만나는 서커스의 달인들

'서커스는 무엇이며, 서커스적인 것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서커스라는 개념 안에서 동시대라는 시간성과 일상의 공간성이 조우하게 된다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가 지나온 시간의 궤적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임과 동시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문자 그대로 '리~서치'의 과정이다.

리서치 향후 계획

향후 지속적인 리서치 진행 예정

프로듀서 그룹 도트

'프로듀서그룹 도트'는 연극, 무용, 다원 예술 분야에서 축제, 공연 제작, 해외 투어 기획·운영, 국제 네트워크 기획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프로듀서 콜렉티브 단체이다. 그중 최봉민과 소경진, 손옥주가 모여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예, 그리고 그 기예와 맞닿아 있는 서커스의 일루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프로듀서 최봉민 | 010-8901-6079 | bmchoipd@gmail.com

Contemporary Meister: A Research on Everyday Life Circus

PRODUCER GROUP DOT | 2019



Meeting masters of the circus in daily life

What is a circus and what is circus—like? And when the temporality of "contemporary" and the spatiality of everyday life meet within the concept of the circus, how can we explain the resulting phenomena caused by this encounter? The path taken by (Contemporary Meister: A Research on Everyday Life Circus) constitutes a journey to find answers for the aforementioned question as well as a process of literal "re—search," that keeps coming back to the same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creative activities in 2020

Producer Group DOT

Producer Group DOT is a professional producer collective, founded by Bong-min Choi, Kyeong-jin So and Ok-ju Son, based on their curiosity toward the unique skills shown by ordinary people that they met in everyday life, and circus illusions that are connected to such skills.

Producer Bongmin Choi | +82-10-8901-6079 | bmchoipd@gmail.com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제작 [거리예술]**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PRODUCING [STREET ARTS]

-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향하는 것도 아니다
-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
-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 정당한 영광 : 두 번째 삶
- 돌. 구르다
- 서울탈춤
-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
-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 풍정.각(風情.刻) 장안평
- Neither from nor toward
- Human Seller Recruitment
- Dance of Oblivion 4.16 Seoul tour bus of Oblivior
- Righteous Glory: The Second Life
- Rock Rolling
- Seoul Talchum
- 3pm to 3pm, 4pm to 4pm
-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 Reading in Pungjeong Gak Alley @Janganpyeon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향하는 것도 아니다

유지영(종달정) | 2019 | 거리무용



러닝타임	50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출연진	배우 3명 / 스태프 5명	TEXT	대사 있음

거리와 극장의 물리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극장의 규칙들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극장을 느끼는 동시에 혼란을 겪게 된다. 작품의 공간은 거리도 극장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사이에 있는 상태가 된다.

고정된 규칙들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이 상태로 인해, 이제 어떤 것도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디로 향할지도 알 수 없다.

유지영(종달정)

유지영(종달정)은 안무자 및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다. 신체의 이데올로기적 관념에 대한 질문을 2015년부터 지속해서 던져왔으며 최근에는 실제와 현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거리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작업으로는 〈인체도〉,〈그래야만 한다〉,〈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두를 위한 몸만들기〉등을 발표하였다.

주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30

 대표
 유지영
 010-9945-5166
 dbwldud1031@naver.com

 실무자
 강유진
 010-2079-2802
 yoojink1002@gmail.com

홈페이지 -

SNS 유튜브 youtube.com/user/dbwldud1031

인스타그램 instagram.com/yoojiyoung_official

Neither From Nor Toward

JIYOUNG YOO(JONGDALJEONG) | 2019 | STREET DANCE



RUNNING TIME	5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3 / Staff 5	TEXT	KOREAN

When rules of the theater appear on the street despite the differences in physical conditions between the street and the theater, we become mired in confusion in spite of sensing the theatricality that is occurring. The space where the performance is staged becomes a place that is neither a street nor a theater. Because of the in-between state that is not tied down by fixed rules, we can no longer know what will come from where nor what will go where,

Jiyoung Yoo(Jongdaljeong)

Jiyoung Yoo(Jongdaljeong) is a choreographer and performer, it has cast questions about ideological notions around the body since 2015 and now focuses on the themes of reality and existence. The group is encountering audiences in the streets and theaters and has presented (Canon of Proportions), (It, Should), (Questions about the Names of Body Parts), (Body Building for the Head).

ADDRESS Deongneung-ro 730, Nowon-gu, Seoul

 PRESIDENT
 Jiyoung Yoo
 +82-10-9945-5166
 dbwldud1031@naver.com

 POINT OF CONTACT
 Yujin Kang
 +82-10-2079-2802
 yoojink1002@gmail.com

WEBSITE

SNS Youtube youtube.com/user/dbwldud1031

Instagram #yoojiyoung_official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

조음기관 | 2019 | 거리인형극, 이동형 공연



러닝타임	50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출연진	배우 3명 / 스태프 5명	TEXT	대사 있음

인간이 생명을 거래한다는 것에 대한 이기심

인간은 오랜 시간 언어와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 그리고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선택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모해왔다. 이 이기적인 선택들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는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치듯 행했던 선택들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문 제적인 모습을 인간과 인형 그리고 관객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조음기관

조음기관은 인형, 오브제, 기획, 설치, 무대, 배우, 광대, 전통, 무용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단체이다. 사전적 의미로의 조음기관은 소리 내어 말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인체기관을 뜻한다. 서로 다른 기관의 연결된 움직임이 발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작업은 하나의 본질적인 소리를 향한 탐구로 이어진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4바길 54

 대표
 이지형
 010-2275-2999
 wlgud5539@naver.com

 실무자
 추수연
 010-6565-6062
 sudanse@naver.com

홈페이지 http://bit.ly/2o4tMto

SNS -

Human Seller Recruitment

ARTICULATOR | 2019 | STREET PUPPET THEATRE, PROMENADE THEATRE



RUNNING TIME	5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3 / Staff 5	TEXT	KOREAN

The selfishness of humans trading lives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languages and civilizations by humanity, the choices we make for our convenience have increasingly become selfish. These choices are now almost reaching an end. 〈Human Seller Recruitment〉 paradoxically demonstrates the problematic behaviors that we had displayed without thinking, as reflected through human beings, dolls and the audience themselves.

Articulator

Articulator consists of experts specializing in various genres including dolls, objects, planning, installation, acting, clowning, traditional arts, dance, etc.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n articulator is any organ required for vocalization. As a voice is created through the interconnected movements of articulators, the work of each component or member is directed toward the exploration of one primal sound.

ADDRESS 54, Jeungga-ro 24ba-gil, Seodaemun-gu, Seoul

PRESIDENTJeehyung Lee+82-10-2275-2999wlgud5539@naver.comPOINT OF CONTACTSooyeon Choo+82-10-6565-6062sudanse@naver.com

WEBSITE http://bit.ly/2o4tMto

SNS -

36 ___ 2019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___ 37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극단 신세계 | 2019 | 이동형 공연



러닝타임	480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출연진	배우 8명 / 스태프 18명	TEXT	대사 있음

《망각댄스_4,16편》은 시민들에게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여행의 기회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있지만 '나'는 없는 이 도시 속 거리 혹은 광장에 잠시 멈추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 혹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인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본으로 인해 우리는 정작 정말 중요한 눈앞의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망각댄스_4,16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망각을 통해 놓친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극단 신세계

극단 신세계는 새로운 세계, 믿을 수 있는 세계를 만나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 시대가 불편해하는 진실들을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주제와 형식의 제약없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9년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 2018년 연극 〈광인일기〉, 〈공주(孔主〉들〉 2017년 연극〈파란나라〉, 〈말 잘 듣는 사람들〉 〈1111〉 2016년 연극〈파란나라〉, 〈그러므로 포르노〉, 〈멋진 신세계〉 등 공연

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9 지하1층

대표 김수정 010-8761-7233 newworld_s@naver.com

실무자 김보경 010-8484-0534 홈페이지 http://www.dramanewworld.co.kr

SNS 페이스북 facebook.com/dramanewworld 트위터 @SNewworld

인스타그램 #newworld s

Dance of Oblivion_4.16 Seoul tour bus of Oblivion

THE THEATER MAKER NEW WORLD | 2019 | PROMENADE THEATRE



RUNNING TIME	48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8 / Staff 18	TEXT	KOREAN

⟨Dance of Oblivion_4.16 Seoul tour bus of Oblivion⟩ presents the opportunity to escape from everyday life in the place where we live. It suggests pausing for a moment within the city, whether on a street or a square, where only "we" exist but not "me", and to take an unflinching look at ourselves, or myself. Amidst the repetition of our busy everyday lives, are we perhaps forget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reality where human beings are no longer the priority, we might miss the most important things if we turn a blind eye to what is happening right in front of us. Dance of Remembrance: April 16 seeks to help us remember the precious things that we have forgotten in our daily lives,

The Theater Maker New World

The Theater Maker New World is a company of young artists who wish to encounter a new world that is worthy of their trust. The group seeks to address the uncomfortable truths of our era through their performances, telling today's stories through our language and our bodies without constraints,

Their past plays include $\langle Egalia's Daughters \rangle$ in 2019, $\langle A Madman's Diary \rangle$ and $\langle Owners of Holes \rangle$ in 2018, $\langle Blue World \rangle$, $\langle Obedient People \rangle$, $\langle 1111 \rangle$ in 2017, $\langle A Pornography Consequently \rangle$, $\langle A Whole New World \rangle$ in 2016.

ADDRESS B1, 25-9, Dongsomun-ro, Seongbuk-gu, Seoul

PRESIDENT Soojung Kim +82-10-8761-7233 newworld_s@naver.com

POINT OF CONTACT Bokyung Kim +82-10-8484-0534

WEBSITE http://www.dramanewworld.co.kr

SNS Facebook facebook.com/dramanewworld Twitter @SNewworld

Instagram #newworld_s

정당한 영광 : 두 번째 삶

양서류와 벗님들 | 2019 | 퍼포먼스



러닝타임 60분 무대크기 9M X 9M 대사 없음 출연진 배우 3명 / 스태프 12명 TEXT

'정당한 영광'은 사회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영광 : 두 번째 삶'은 노동의 대가가 개인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정당한 영광은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 에서가 아니라 내가 수호해야 하는 것을 지켜냈을 때, 그 때 빛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작업을 통해 말하고 싶은 노동의 정의입니다. 어쩌면 노동이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지시받는 일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자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행위, 그런 움 직임 모두가 '노동'의 일부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정당한 영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양서류와 벗님들

진솔한 토의의 약자인 '진토'라는 창작집단으로 활동하다가 관객이 '창작은 난해하다'라는 선입견 없이 쉽게 작품을 관람하길 원하는 마음에 서 단체명을 양서류와 벗님들로 변경하였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15

대표 정찬일 010-2008-9220 114641@naver.com 실무자 조경철 010-5554-6085 gamejjan@naver.com

홈페이지

페이스북 facebook.com/withfriendscompany SNS

Righteous Glory: The Second Life

AMPHIBIAN & BUDDIES | 2019 | PERFORMANCE



RUNNING TIME	60min	STAGE SIZE	9M X 9M
CREW	Cast 3 / Staff 12	TEXT	No Lines

(Righteous Glor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ociety pays fair compensation for people's labor. (Righteous Glory: The Second Life) is the story of whether the price of labor leads to personal glory. The legitimate glory of labor shined when I defended the things that I had to protect, not when I earned social recognition or a wage. The message that we want to deliver through this work is the definition of labor. Perhaps labor does not necessarily connote the act of doing whatever we are told to do within a company. Protecting what is precious in our individual lives might also represent an aspect of labor. In this regard, we are all living in legitimate glory.

Amphibian & Buddies

The creative group 'Amphibian & Buddies' were once named 'Jinto', meaning "honest discussion," but renamed itself in the hope that the audience would be able to enjoy their performances at ease without the preconception that "creativity is abstruse "

ADDRESS 29-15, Supsongmaeul 1-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PRESIDENT Chanil Jung +82-10-2008-9220 114641@naver.com POINT OF CONTACT Kyoungchul Cho +82-10-5554-6085 gamejjan@naver.com

WEBSITE

SNS 페이스북 facebook.com/withfriendscompany

돌, 구르다

비주얼씨어터 꽃 | 2019 | 거리극



꽃길 위에서 넘어진 사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절정에서 추락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사내. 그의 환영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타인에 대한 절절한 목마름. 감 춰진 로맨스와 열망들까지, 우리는 한 인간의 서정과 자유가 사회와 공권력의 비인간적 폭력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 작 품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불편하고 유의미한 경계선에 서있는 노숙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사회를 고발하려 한다. 동시에 인간의 부조리한 실 존을 고백하려 한다.

무대크기

TEXT

공간별 상이 대사 있음

비주얼씨어터 꽃

러닝타임

출연진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에 의해 창단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거리의 일상과 공간 등 일상을 예술적 공간으로 만들며,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꽃'의 공연들은 프랑스 샬롱 거리예술축제, 스페인 피라타레가 축제, 영 국, 러시아, 폴란드 등 유럽 최대의 거리극 축제들에 연이어 초청되면서 한국의 거리예술을 알려왔다. 연출가 이철성은 먼저 시인으로 등단 하여 문학과지성사에서 시집들을 출간하였다. 비주얼씨어터 꽃, 체험예술공간 꽃밭의 대표로 국제적으로 공연을 발표하며 '탁월한 시각연출 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0, 5층 주소

배우 4명 / 스태프 6명

대표 이철성 010-2396-1020 namunun@hanmail net

홈페이지 www.visualtheater.kr

SNS 페이스북 facebook.com/visualtheaterccot

Rock, Rolling

CCOT | 2019 | STREET THEATER



RUNNING TIME	5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4 / Staff 6	TEXT	KOREAN

A man who fell on a flower-filled path. The story of our fall from grace at the peak of a most wonderful moment.

A homeless man living on the street. His longing for family, nostalgia for childhood, want of affection from others and hidden romance and desires all seep through his illusions. We only witness a human being's character and freedom collapse before the inhumane violence of society and public authority. This performance aims to expose the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through the homeless man, who is standing at the uneasy but significant borderline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and to address the irrationalities of human existence

CCOT

'CCOT'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pursues a form of visual theater that integrates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Founded in 2000 by Cheol-seong Lee, who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CCOT is an internationally active group. It explores the depths of life, transforming ordinary spaces into artistic spaces. A regular guest at the biggest street theater festivals including Chalon dans la rue in France, Fira Tarrega in Spain and many others in the U.K., Russia and Poland, CCOT has introduced Korean street arts to the world. Director Cheol-seong Lee had made his debut as a poet and published poetry collections at Moonju Publishing before entering into performing arts, As the head of CCOT and experimental art space CCOTBBAT, he has presented various performances internationally and won many awards including the Outstanding Visual Direction Award.

ADDRESS 5F, 60, Dongsomun-ro, Seongbuk-gu, Seoul

PRESIDENT Cheolseong Lee +82-10-2396-1020 namunun@hanmail net

WEBSITE www.visualtheater.kr

SNS 페이스북 facebook.com/visualtheaterccot

서울탈춤

서울괴담 | 2019 | 거리극, 가면극



러닝타임	60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출연진	배우 6명 / 스태프 8명	TEXT	대사 있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고유의 거리공연이자 공동체 예술인 '탈춤'. 탈춤의 동시대성과 공동체성을 살리고 탈춤이 가진 전통의 의미를 살리며 지금 현재 우리의 공연으로 만들고자 한다. 현대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의 공연예술 활동을 해왔던 극단 서울괴담이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를 발굴하고 탈과 춤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거리예술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서울괴담

극단 서울괴담은 현대도시의 터무니없는 현상들을 괴담의 형식으로 재조명하여 현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극단이다. 밀폐된 극장을 벗어나서 거리 또는 특정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창작과 공연을 통하여 소외된 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추어진 이슈에 주목한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49-26

대표 이정은 010-2715-0901 eell@naver.com

홈페이지 -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kedam

Seoul Talchum

SEOULKEDAM | 2019 | MASQUE PERFORMANCE, STREET THEATER



RUNNING TIME	6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6 / Staff 8	TEXT	KOREAN

'Talchum' (masked dance) is one of Korea's many traditional street and community arts. Accentuating the contemporaneousness, community spirit and traditional significance of masked dance, Seoul KEDAM recreates talchum as a performing art form of here and now. The theater company Seoul KEDAM, which has staged various forms of performing arts with a focus on modern urban problems, now delves into the stories and characters that embody Seoul and encounter its citizens through this long—term project involving traditional Korean street arts.

Seoulkedam

Seoulkedam transforms the absurd phenomena found in modern cities into scary stories and rephrases them as questions cast toward the contemporary world. Escaping the closed space of the theater, the company casts a light on individuals' problems within the community via new forms of theater that take place on the street or specific locations. Through its creative activities and performances, Seoulkedam understands the pain and anxiety of the neglected, and highlights hidden issues,

ADDRESS 49-26, Bogungmun-ro, Seongbuk-gu, Seoul

PRESIDENT Jungeun Lee +82-10-2715-0901 eell@naver.com

WEBSITE

SNS Facebook facebook.com/seoulkedam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

코끼리들이 웃는다 | 2019 | 관객참여형 공연, 장소특정형 공연



러닝타임	24시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출연진	배우 4명 / 스태프 16명	TEXT	대사 있음

당신의 24시간을 우리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나요?

새벽 어스름. 정오의 태양. 노을. 그리고 어둠. 빛과 시간은 한 몸 같다. 틀림없게 움직인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좋은 아침!' 인사하고, '점심 먹었어?' 안부를 묻고, '편안한 밤!' 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갑자기 빛이 사라진다면? 마치 원래부터 빛이 없었다는 듯,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면? 서로의 일과와 안부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과 나는 어떤 인사를 건네게 될까?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안부를 물을 수 있을까?

코끼리들이 웃는다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공연예술단체로서 관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아가는 단체입니다. 관객의 역할 확장 – 객석에서의 수동적인 관람에서 확장되어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하는 공연을 만듭니다. 또한 그들의 일상이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예술창작에 있어서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고자하는 작업의 주제와 소통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통해 실험적인 작업을 추구합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46

대표 이진엽 010-4592-6376 charlye337@hotmail.com

홈페이지 www.elephantslaugh.com

SNS 페이스북 facebook.com/elephantslaugh

3pm to 3pm, 4pm to 4pm

ELEPHANTS LAUGH | 2019 | SITE SPECIFIC PERFORMANCE, PARTICIPATORY PERFORMANCE



RUNNING TIME	24hours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4 / Staff 16	TEXT	KOREAN

Can you trust us completely with your 24 hours?

The gray of dawn, high sun of noon, sunset glow and darkness. Light and time seem as one. Both move precisely and without fail. You and I greet each other the same way each day, saying "Good morning," "Have you had lunch yet?" and part ways, saying, "Have a good night." But what if light disappears all of a sudden? What if time continued to pass as though light had never existed at all? Our routines and greetings will begin to disconnect. What would we say to each other when we meet then? Would we be able to navigate through the dark to shake each other's hand and ask after each other's wellbeing through a new expression?

ELEPHANTS LAUGH

'ELEPHANTS LAUGH'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constantly explores various methodologies of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In order to expand the audience's role, the group creates participatory performances that emancipate the audience from passively viewing the stage in their seats. It also seeks to develop activities that link everyday life to the arts. In their creative activities, Elephants Laugh does not set a boundary between genres and instead pursues experimental efforts using diverse artistic elements according to the target audience and the topic to be conveyed.

ADDRESS 46, Pirundae-ro 1-gil, Jongno-gu, Seoul

PRESIDENT Jinyeop Lee +82-10-4592-6376 charlye337@hotmail.com

WEBSITE www.elephantslaugh.com

SNS Facebook facebook.com/elephantslaugh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정가악회 | 2019 | 거리음악극



러닝타임 40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대사 있음 출연진 배우 12명 / 스태프 11명 TEXT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비와 추모시설 909개.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설치물 1,197개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같은 기념비와 탑과 동상을 통해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국가영웅의 공로와 업적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망각된 기억과 삭제되어버린 시대가 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은 정가악회 단원 개개인의 기념행위에서 시작된다. 이 속에서 단원 개개인은 환희의 순간을 다시 만끽하거나 아픔의 기억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고, 이를 통해 사소한 일상의 기념일부터 사회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환호의 순간들을 다시 불러내 그 의미를 묻는다.

정가악회

정가악회는 2000년에 창단한 전문국악단체이다. 가곡과 줄풍류, 판소리, 민요 등의 장르를 음악적 자산으로 하며, 국악의 서양화(westernization)가 아닌 모범적인 현대화(modernnization)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음악이 가진 깊이와 미화에 대한 해석에 있어 탁 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을 동시에 현대의 음악적 사운드와 형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국악을 과거의 음악이 아닌 ' 지금', '여기'의 음악으로, 동시대와 호흡하는 음악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9 4층(갈월동)

대표 천재현 010-8714-3686 jgah@jgah.co.kr 실무자 박용휘 010-4102-9749 yh@boboo.kr

홈페이지 www.jgah.co.kr

SNS 페이스북 facebook.com/igahmusic 트위터 twitter.com/jgahmusic

유튜브 youtube.com/user/jgahmusic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JEONG GA AK HOE | 2019 | STREET MUSICAL



RUNNING TIME	4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12 / Staff 11	TEXT	KOREAN

There are 909 monuments and memorial installation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colonial-era Korea and 1.197 installations designated as memorials that commemorate event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nd meritorious deeds of war veterans. We designate certain days as memorial days and install monuments and statues to remember the service and achievements of national hero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eras that were forgotten and erased from our memories.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begins with acts of celebration by individual members of 'Jeong Ga Ak Hoe'. They sing to relish moments of happiness or console painful memories and recall moments ranging from the minor celebrations of everyday life to moments commemorated across society, examining their significance.

Jeong Ga Ak Hoe

'Jeong Ga Ak Hoe' is a professional Korean classical music group founded in 2000. Specializing in various Korean musical genres including songs, julpungnyu(string ensemble), pansori and folk songs, the troupe strives to pursue an exemplary direction for modernization, rather than the simple Westernization of Korean music. Jeong Ga Ak Hoe, which is highly regarded for its interpretations of the depth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music, seeks new ways of modern sounds and formats to gain mass appeal and situate Korean classical music not as music of the past, but that of "here" and "now,"

ADDRESS 4F. 309,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PRESIDENT Jaehyeon Cheon +82-10-8714-3686 jgah@jgah.co.kr POINT OF CONTACT Yonghwi Park +82-10-4102-9749 yh@boboo.kr

WEBSITE www.jgah.co.kr

SNS Facebook facebook.com/jgahmusic Twitter @igahmusicYoutube

Youtube youtube.com/user/jgahmusic

풍정.각(風情.刻) 장안평

일일댄스프로젝트 | 2019 | 거리무용, 이동형 공연



러닝타임	60분	무대크기	공간별 상이
출연진	배우 16명 / 스태프 11명	TEXT	대사 없음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 열한 번째는 1970년대 이래 중고차 매매와 자동차 부품 생산의 메카로 기능해 온 자동차산업의 거점도시 '장안평'에 주목한다. 시간이 누적된 도시의 장소에서 무용수들의 삶의 서사를 몸짓으로 중첩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 도시개발과 재생 이슈로 변화하는 장안평의 모습을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이자 산책형 공연으로 담아낸다.

일일대스프로젝트

일일댄스프로젝트는 2004년 무용가 송주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문중심의 현대무용단체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전문무용수, 비전문 무용수와 함께 도시의 장소에서 삶의 시공간에 대한 리서치와 음악, 무용 영상의 코워킹으로 공간—신체—지금여기 관계를 재조명하는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시리즈'를 통하여 내밀한 질의와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리즈는 북촌문화센터, 이태원 MMMG빌딩, 서울도서관, 통의동 골목 외 프랑스 몽펠리에 Eglise de Clapiers, 독일 베를린 Meinblau, 낙원빌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청파동골목, 돈의문 박물관, 낙산골한옥마을에서 이루어졌고 계속될 예정이다. 현대인의 표상화되고 기능적이 되어지고, 유리되고 잊혀져 가는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희망하며,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신체적 이해와 예술적 담화를 도모하는 몸평화와 마음공유를 표방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49 아랫집

 대표
 송주원
 010-4712-4997
 11danceproject@gmail.com

 실무자
 이경미
 010-4243-3313
 kmi.lee141@hanmail.net

홈페이지 www.lldanceproject.com SNS 인스타그램 #lldanceproject

유튜브 youtube.com/user/jgahmusic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Janganpyeong

11 DANCE PROJECT | 2019 | STREET DANCE, PROMENDE THEATRE



RUNNING TIME	60min	STAGE SIZE	FLEXIBLE
CREW	Cast 16 / Staff 11	TEXT	No Lines

Poongjeong Gak 11, a dance project set in the urban space, focuses on Janganpyeong, which has been a hub city of the automobile industry, as well as a center of used-car markets and automobile parts production. In urban spaces where time has accumulated, dancers layer the narratives of life using their body movements and embody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area, in addition to changes in the landscape caused by issues of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in the form of space-specific performances as well as strolling performances.

11 Dance Project

'11 Dance Project' was founded by Joowon Song in 2004 and transitioned from an alumni-based modern dance company to a community movement project group consisting of artists from different genres.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and amateur dancers, the group continues to ask questions and engages in discussions through research on the space-time of life within the urban space and Poongjeong Gak, a series of dance projects staged in the urban space, thereby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body, and the here and now through the convergence of music, dance and video. This series has taken place at Bukchon Culture Center; MMMG Itaewon; Seoul City Library; alleyways in Tongui-dong; Eglise de Clapiers in Montpellier, France; Meinblau Projektraum in Berlin, Germany; Nakwon Build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alleyways in Cheongpadong; Donuimun Museum Village and Namsangol Hanok Village, with more to come. Hoping to reach closer to the essence of the exemplified and functionalized lives of modern people, 11 Dance Projects advocates the peace of body and mind-sharing, promoting a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body and artistic discourse.

ADDRESS 149-4, Changuimun-ro, Jongno-gu, Seoul

PRESIDENTJoowon Song+82-10-4712-499711danceproject@gmail.comPOINT OF CONTACTGyeongmi Lee+82-10-4243-3313kmi.lee141@hanmail.net

WEBSITE www.1ldanceproject.com

SNS Instagram #1ldanceproject

Youtube youtube.com/user/jgahmusic

50 ____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참작지원 사업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____ 51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제작 [서커스]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PRODUCING [CIRCUS]

- SKY 텐트
- 해년
- SKY Tent
- HAENYEC
- A lonely whale in the space



SKY 텐트

프로젝트 날다 | 2019 | 서커스(버티컬 퍼포먼스, 트램펄린, 차이니즈 폴, 에어리얼 로프)



러닝타임	40분	무대크기	텐트 구조물 8M*8M*11M
출연진	배우 5명 / 스태프 8명	TEXT	대사 없음

하늘을 유랑하는 상상의 텐트, SKY 텐트

텐트는 거리의 극장, 게릴라 극장이 되어 대중을 만난다.

텐트 지붕과 월은 우리네 전통 기와와 창호 등의 이미지를 지녀 친근하면서 새롭다.

텐트지붕에는 연주자들이 앉아 음악을 만들고, 거리의 운율을 바꾼다. 하늘에서 내려온 텐스 속, 우리네 서커스 한마당이 펼쳐지며 모두가 즐거운 흥을 만다.

프로젝트 남다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를 융합시켜나가는 예술 단체이다. 개발과 창작은 "공중퍼포먼스", "서커스", "공연기술", "전문 인력", "공간"에 집중한다. 2010년부터 국내외 유명 공연예술축제와 지역문화축제에 초청되었고,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문화 공연에 출연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공중 예술 단체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파이더스〉, 〈마법의 숲〉, 〈빛, 날다〉, 〈올바운 스〉등이 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26길 2층

대표 김경록 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홈페이지 http://projectnalda.allofthat.kr/

SNS 페이스북 facebook.com/naldacircus/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yunglok/

유튜브 youtube.com/user/jgahmusic

SKY Tent

PROJECT NALDA | 2019 | CIRCUS(VERTICAL PERFORMENCE, TRAMPOLINE, CHINESE POLE, AERIAL ROPE)



RUNNING TIME	40min	STAGE SIZE	TENT STRUCTURE 8M*8M*11M
CREW	Cast 5 / Staff 8	TEXT	No Lines

An imaginary tent that floats across the sky, Sky Tent

A tent becomes a theater on the street or a guerrilla theater that reaches out to the public. The top and sides of the tent resemble traditional Korean roof tiles, windows and doors, establishing an ambience that is both familiar and new at the same time. The performers sit on top of the tent and play music, changing the rhythm of the street. Inside the tent that descended from the sky, a circus is performed and everyone shares in the revelry.

Project NALDA

'Project NALDA' is an arts group that fuses different genres, utilizing the space of the air. Its cre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focused on aerial performances, circuses, skills, experts and space, Nalda has been invited to wellknown performing arts festivals and local cultural festivals at home and abroad since 2010 and appeared at the opening ceremony at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establishing itself as the premier air performance group representing Korea, Its previous work includes (Spiders), (Magical Forest), (Light, NALDA) and (All Bounce),

ADDRESS 2F. 7-1, Dorim-ro 126-gil, Yeongdeungpo-gu, Seoul

PRESIDENT Kyungrok Kim +82-10-3175-2444 pro_nalda@naver.com

WEBSITE http://projectnalda.allofthat.kr/

SNS Facebook facebook.com/naldacircus/ Instagram instagram.com/kyunglok/

Youtube youtube.com/user/jgahmusic

해녀

모빌 | 2019 | 서커스(에어리얼 퍼포먼스)



러닝타임	20분	무대크기	8M X 8M X 8M
출연진	배우 1명 / 스태프 3명	TEXT	대사 없음

제주의 여성공동체, 해녀

그녀들의 삶과 죽음의 철학 그리고 생태계 보존의 원리를 강인한 아름다움의 핵심 요소로 재현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을 넘어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용해야 할 생명의 지혜로 풀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침을 멈추고 제주 해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된 미래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빌

모빌은 에어리얼 서커스를 메인으로 공연 활동을 하는 서커스 아트 컴퍼니이다. 오브제의 적극적인 활용 컨토션 액트와 사운드 아트 등과의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통하여 깊이와 이유가 있는 움직임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모빌의 대표인 김주영은 발레, 아르헨티나 탱고, 플라 멩코 등의 다양한 장르의 댄서로 활동을 한 배경을 가진 서커스 퍼포머이다. 뉴욕에서 에어리얼 서커스를 훈련받고 돌아와 음악 콘서트, 뮤지컬 오, 페라 등에서 에어리얼리스트로 활동하던 중 서커스 아트의 폭을 넓히고자 일본에서 컨토션 액트 훈련을 받으며 컨토셔니스트로서 도 활동의 역영을 넓히고 있다. 현재 컨토션 액트와 에어리얼 서커스를 접목시킨 작품을 만들어 다채로운 1인 서커스 쇼와 다른 서커스 퍼포 머와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87

대표 김주영 010-9735-9101 skydance.kr@gmail.com

홈페이지 http://projectnalda.allofthat.kr/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kydance.kr 인스타그램 #beau_skydancer

HAENYEO

MOVIL | 2019 | CIRCUS(AERIAL PERFORMANCE)



RUNNING TIME	20min	STAGE SIZE	8M X 8M X 8M
CREW	Cast 1 / Staff 3	TEXT	No Lines

HAENYEO a community of women in Jeju

Recreating the philosophy on life and death held by haenyeo, or female divers, and the principle of ecological conservation as the core elements of a rugged sense of beauty, MOVIL talks about the wisdoms of life that should not only be preserved as a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but also be embraced by us and the future generations. Whether the race of time can be halted to elevate the beauty of haenyeo into a lasting future is our choice to make.

MOVIL

MOVIL' is a circus arts company specializing in aerial performances. By actively using objects and collaborating with other genres such as contortion acts and sound arts, MOVIL creates movements with depth and reason with the ultimate aim to communicate. Ju-yeong Kim, the leader of MOVIL, is a circus performer who has also worked as a dancer across various genres such as ballet, Argentine tango and flamenco. After being trained in aerial circus in New York, Kim came back to Korea and worked as an aerialist in music concerts, musicals and operas, and traveled to Japan to widen the scope of circus arts and to be trained in contortion acts. Today, she is also active as a contortionist who is broadening the scope of her performances. Combining contortion acts and aerial circus, she creates various one—person circuses and collaborates with other circus performers,

ADDRESS 187, Seongmisan-ro, Mapo-gu, Seoul

PRESIDENT Juyeong Kim +82-10-9735-9101 skydance.kr@gmail.com

WEBSITE http://projectnalda.allofthat.kr/

SNS Facebook facebook,com/skydance,kr/ Instagram #beau_skydancer

우주고래

공연창작집단 사람 | 2019 | 서커스(에어리얼 로프)



러닝타임	35분	무대크기	6M X 8M X 8M
출연진	배우 1명 / 스태프 10명	TEXT	대사 없음

과거의 '나'와 같은 현재의 '너'의 이야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뒤에는 트라우마라는 흉터가 남기도 한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각자 다른 스위치로 인해 계속해서 재생되어 우리를 괴롭힌다.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독하고 지독한 싸움 속에서 마치 우주 속에서 홀로 허우적거리는 외로운 고래 한 마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다. 이 작품은 공중밧줄을 중심오브제로 사용하여 트라우마 속 개인과 삶의 의지를 표현한 자기고백적 작품이다.

공연창작집단 사람

공연창작집단 사람(A PERSON;S)는 신체행위예술을 중심으로 한 종합예술을 통해 거대한 철학적 관념 제시가 아닌 목표의식과 맞닿은 행위의 직접적인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서커스와 신체연극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4길 6

 대표
 서상현
 010-9368-1445
 aperson_s@naver.com

 실무자
 이현정
 010-7765-0879
 jong0879@gmail.com

홈페이지 -

SNS 인스타그램 #aperson_s

A lonely whale in the space

A PERSON;S | 2019 | CIRCUS(AERIAL ROPE)



RUNNING TIME	35min	STAGE SIZE	6M X 8M X 8M
CREW	Cast 1 / Staff 10	TEXT	No Lines

The story of "you" in the present like "me" in the past.

Unbearable hardship sometimes leaves the scar of trauma. This scar does not stay in the past but continues to regenerate through different triggers and torments us. In a lonesome and tenacious battle with ourselves, we resemble a solitary whale floundering alone in outer space. Using aerial ropes as the central objet, A Lonely Whale in Space presents a self-confessional work that expresses a traumatized individual and the will to live.

A PERSON:S

Creative Group 'A PERSON;S' pursues the direct realization of acts that are linked to a sense of purpose rather than presenting grand philosophical ideas, using convergent arts that revolve around performing arts. Currently, A PERSON;S is working on circus and physical theater.

ADDRESS 6, Dapsimni-ro 34-gil, Dongdaemun-gu, Seoul

PRESIDENTSanghyun Seo+82-10-9368-1445aperson_s@naver.comPOINT OF CONTACTHyeonjeong Lee+82-10-7765-0879jong0879@gmail.com

WEBSITE

SNS Instagram #aperson_s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국제공동제작 [거리예술]**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TERNATIONAL CO-PRODUCTION [STREET ARTS]

- Waking the Witch
-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이 생각나)
- Waking the Witch
- When it rains, (I feel like eating Jeon



Waking the Witch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 2019



Waking the Witch, 그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

원래 'Waking the Witch'라는 말은 17세기 유럽의 마녀재판에서 마녀로 지목된 여자로부터 자신이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행해졌던 특별한 고문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Waking the Witch'라는 말을 이번 창작 리서치의 제목으로 택한 이유는 이 말 속에 숨은 다른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마녀, 체제를 전복시키는 원초적인 힘을 깨워라'라는 더욱 매력적인 의미를.

마녀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억압해온 모든 아웃사이더들을 대신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힘을 빌어 모든 형태의 낡고 썩은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녀의, 아웃사이더들의 힘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2008년에 김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는 목소리를 주된 매체로 하여 극공연과 음악공연을 넘나드는 보이스씨어터컴 퍼니 이다. 인간의 목소리가 '몸'과 '마음', 그리고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리재료를 본격적으로 실험하여 창작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010-7225-2777

jjjin323@hanmail.net

Waking the Witch

MOMSORI | 2019



Waking the Witch, on the possibility of dual interpretations

Originally, the expression "waking the witch" meant a special torture method that was carried out in witch trials in order to force a confession from women suspected as witches in 17th-century Europe, However, the reason we decided to name our creative research "Waking the Witch" is that we found another meaning hidden in the expression. In fact, it carries a more attractive meaning. Waking the witch inside us, waking a raw power that can subvert the system, Witches might be a word that encompasses all the outsiders who have been alienated, ostracized and oppressed by our society. As shown throughout our history, we are able to punish and silence them. Or, instead, we could overthrow and transcend all kinds of old and rotten systems with the aid of the outsiders. What we can achieve with the power of witches and outsiders will always depend on us.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MOMSORI

'MOMSORI', founded by Jinyoung Kim in 2008,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theatrical performances and musical performances using voice as the main medium. MOMSORI recognizes the human voice is a passage linking the body, mind and space, based on which it creates works that experiment with the sound ingredients.

PRESIDENT

Jinyoung Kim

+82-10-7225-2777

jjjin323@hanmail.net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이 생각나)

프로젝트 다리 | 2019



무지개의 끝;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는 여정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나열할 때 우리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소멸되거나 감추어진, 잃어버리고 지워진, 잊히 고 검열당한, 혹은 사회와 미디어에 의해 왜곡된 것들을 떠올렸다. 이를 탐색하고자 소리와 오브제를 주요 도구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관객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조형하도록 설계했다. 작품은 공간과 장치의 역동성을 강조함으로써 관객들이 직접 몰입하여 작품을 관람하게 하고, 마주한 공간을 재조직한다. 작품은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소리, 설치를 통해 이야기를 우회하여 전달한다. 어린 시절의 골목길, 사랑하는 이의 떠남, 고향을 잃은 이들, 새터민과 난민들까지. 주어진 이야기 장치들이 인물의 시간을 추측하게 한다. 기억은 실제와 같을 수 없겠지만 상실 이전의 시간을 다양한 감각으로 재현하는 것이 이 간극을 메운다.

리서치 향후 계획

2020년 작품 제작 진행 예정

프로젝트 다리

프로젝트 다리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람과 사람, 작업과 작업을 잇는 매개가 되고자 한다. 서로 만나지 못하던 것들이 이어지는 장으로서의 창작 실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기획자들의 그룹이다. 임현진은 독립 기획자로 예술과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거리예술 축제 창작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거리예술 국제교류와 공동창작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벌이기를 즐긴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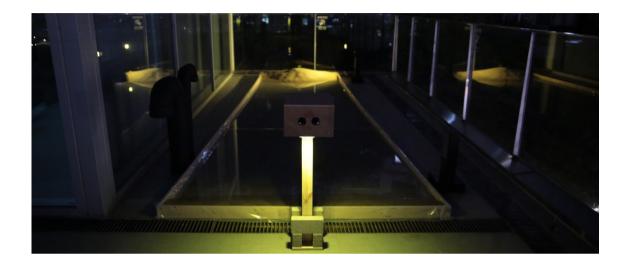
임현진

010-3224-6294

myunzee@naver.com

When it rains, (I feel like eating Jeon)

PROJECT DARI | 2019



At the end of a rainbow, a journey to reach the unreachable

When listing things that are unreachable, we came up with what was under the surface, socially impossible, extinct and hidden, lost and erased, forgotten and censored, or distorted by society and the media. In order to explore these concepts, we made a new space using sounds and objets, which was designed to help the audience shape their own stories. It stresses the dynamic of space and installations so that the audience can be immersed in the work and reorganize the space that they find themselves in. The work does not directly speak about a certain character, but it uses space, sounds and installations to deliver the story in a roundabout way. An alleyway from childhood memories, departure of loved ones, those who lost their home,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these given narrative devices allow the audience to speculate upon the past of these characters. Memories are never the same as reality, but the gaps therein are filled by reenacting the time before loss through various senses,

Future Research Plan

Planned production in 2020

PROJECT DARI

'PROJECT DARI' aims to be a medium bridging story to story, people to people, and projects to projects. This group of plan-makers is interested in creative experiments as a medium that connects things that previously had no point of contact, and helping the arts to permeate across society. Hyeonjin Lim is an independent planner who works with creative organizations for various street arts festivals based on an interest in the arts and urban spaces. Working on efforts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llaborative creation involving street art, Im enjoys beginning new trials in foreign countries.

PRESIDENT

Hyeonjin Lim

+82-10-3224-6294

myunzee@naver.com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서커스 상주형**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CIRCUS RESIDENCY

- FORCE
- 봉앤줄
- FORCE
- BONG n JOUL



아슬

FORCE | 2019 | 서커스(차이니즈 폴, 에어리얼 스트랩, 씨어 휠, 지그롤), 이동형 공연



러닝타임	40분		공간① 7M X 7M X 4M / 공간② 10M X 10M X 8M 공간③ 12M X 7M X 4M
출연진	배우 4명	TEXT	내사 없음

아슬아슬 흔들리는 나, 너, 우리

청년 예술가 그리고 서커스, 그 안에 공존하는 균형.

예술가의 꿈을 품고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예술가들은 현실을 알아가며 예술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곤 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외롭고 고립되어 가는 청년예술가의 삶과 아슬아슬한 서커스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은 매우 닮은 듯하다.

우리들은 그 불안정한 현실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계속해서 맞선다. 그리고 끝내 균형을 찾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서커스 예술과의 접점이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끝내 균형을 잡고 멋진 기예를 펼친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며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과 마주하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며 선택한 그것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꿈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계속해서 펼쳐지는 불안정한 순간에서 멈추지 않고 현명한 선택과 균형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FORCE

FORCE는 신체 움직임을 비롯한 서커스, 무용, 무술 등 다양한 예술(art)과 인터랙티브아트(i, A),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c, T)의 다양한 디지털 아트 기술(technology)을 접목시킨 극(drama)의 창작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되었다.

융합과 연결을 모태로 예술 고유의 가치와 현대의 무한한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조화된 공연 형태를 선보여 예술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는 융합 뉴·폼 아트 창작 그룹이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10길 3-4

대표 이영호 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홈페이지 www.force-artech.com

SNS -

A:seul

FORCE | 2019 | CIRCUS(CHINESE POLE, AERIAL STRAP, CYR WHEEL, ZIG ROLL), PROMENADE THEATRE



RUNNING TIME	40min	STAGE SIZE	SITE① 7M X 7M X 4M / SITE② 10M X 10M X 8M
			SITE③ 12M X 7M X 4M
CREW	Cast 4	TEXT	No Lines

Wavering precariously; me, you and us

Young artists, the circus, and balance that coexists in them. Youths who want to take their first steps in their dream of becoming artists often perceive the reality and wonder if they will be able to continue pursuing art. The lives of lonesome and isolated young artists between reality and ideals resemble a circus artist walking the tightrope,

We continue to face an unstable reality and the ideals of our dreams. And, finally, we start to find the balance, which is the point of contact with circus arts that we are currently performing. We are bound to fail at first upon losing our balance, but if we succeed in keeping our balance, we can achieve spectacular feats of acrobatics. Ultimately, we must face endless fights and find a balance. Making a choice despite wavering precariously is the first step toward our desired dreams, and only by dauntlessly finding wise choices and balance amid endless moments of uncertainty can we find the path of our dreams.

FORCE

'FORCE', founded in 2016, studies and creates dramas that combine different arts, including body movements, circus, dance, and martial arts, using various digital arts technologies including interactive arts and creative technologies. FORCE is a new form of fusion arts creative group that pioneers our gaze and approach to art by effectively presenting a performance form that harmoniously combines the intrinsic value of art with the unlimited possibilities of the modern era,

ADDRESS 3-4, Samjeon-ro 10-gil, Songpa-gu, Seoul

PRESIDENT Youngho Lee +82-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WEBSITE www.force-artech.com

SNS -

고공줄타기대작전(가제)

봉앤줄 | 2019 | 서커스(하이와이어)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늘을 본다.

거리의 사람들과 줄타기를 앞둔 한 남자와의 우연한 마주침. 줄타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남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긴장감, 두려움, 자유로움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스러지다(가제)

봉앤줄 | 2019 | 서커스(차이니즈 폴)

[스러지다] :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돌아보면 매순간 스러졌다.

항상 가득 부풀려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가 사라졌다. 그것을 아쉬워하고 때론 부여잡으려고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사라질 것을 준비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잘 스러지면 좋겠다 싶었다. 그렇게 2019년은 봉앤줄에게 스러지는 준비를 시작한 한해였다.



봉앤줄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서커스 기예인 봉(Chinese Pole) 과 줄(Tight Wire)을 익힌 "안재현"에 의해 창단 되었다. '봉앤줄'은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서커스 기예와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실이지만 상징적 존재들이 혼재된 시공간을 '헤테로토피아 (Hetoro-topia)라고 하는데 서커스 기예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통해 무대 위 '헤테로토피아'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일상은 어떻게 다른 지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25길 31

 대표
 안재현
 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실무자
 이은경
 010-7739-4970
 dnfkdrud@hanmail.net

홈페이지 -

SNS 페이스북 facebook.com/BONGnJOULE

$Highwire-Project ({\tt working\ title})$

BONG N JOULE | 2019 | CIRCUS(HIGH WIRE)

You meet a man's gaze. You see the sky through his eyes.

A chance encounter between people on the street and a man preparing to put on a tightrope performance. When he starts his act, senses of tension, fear and freedom emerge among people and the man. How would the people look at the man?



To Fade (working title)

BONG N JOULE | 2019 | CIRCUS(CHINESE POLE)

[To Fade]: The shape or phenomenon of something gradually becomes hazier until it disappears.

Looking back, everything was fading at every moment.

I always tried to inflate everything and elevate it to the highest place, but everything disappeared in the end. Missing the things that disappear, sometimes I tried to hold onto something, but at some point, I found myself preparing for its disappearance. I wish them to fade away well. The year of 2019 was when 'BONG n JOULE' began preparing to fade.



BONG n JOULE

'BONG n JOULE' is a circus group found by Jaehyun Ahn who studied Chinese pole and tightrope skills and completed a professional circus artist training course at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in 2015. The group focuses on the weaknesses of human beings behind splendid feats of acrobatics and aims to create a contemporary circus combing circus skills and other genres. In particular, the space—time where reality and symbolic presences become intertwined is referred to as Heterotopia, and to find out how different daily lives look from within.

ADDRESS 31, Yangnyeong-ro 25-gil, Dongjak-gu, Seoul

PRESIDENTJaehyun Ahn+82-10-9193-6259bongnjoule@gmail.comPOINT OF CONTACTEungyeong Lee+82-10-7739-4970dnfkdrud@hanmail.net

WEBSITE -

SNS Facebook facebook.com/BONGnJOULE

70 ___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___ 71

2019 거리예술ㆍ서커스 창작지원사업 2014-2018

[2018]

- 노숙프로젝트1 꽃길에서 넘어지다.
- 노숙프로젝트1 꽃길에서 넘어지다.
 서울탈춤
 풍정.각(風情,刻)_돈의문박물관마을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구십육퍼센트
 어둠 속 환타지
 미스트; 촉촉함에 대하여
 과거의 거리, 미래의 거리
 나는 왕파였다.
 해운대구 중1동 1258번지
 2018 SOUND TOUR
 낙화
 수직

[2017]

- 망각댄스[세월호 편] 선동백서 용도변경2017_용산기지 풍정(風精,刻)_청파동 골목 낭독회
- 4.9㎡ 불의 노래_프롤로그 몽환의 숲 체어, 테이블, 체어 칼의 시대

[2016]

- 고물수레 나들이 낯선자들의 거리 마사지사 물질 링더벨 인왕산 호랑이 바위 컨템포러리 서커스 봉앤줄

- 기억하는 사물들
 기억하는 사물들
 닥터랄랄라의 이상한 병원
 도시소리동굴 프로젝트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멀리 있는 무덤
 숨비-물의 경계
 길&PASSAGE
 내 땅의 땀으로부터
 역:STATION:驛
 사물이야기

- [2014] 꽃을 피우는 무대〈화산대〉 단디우화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벌레 : 멈춘 시간, 흐르다 시간, 기억의 축적 아주 작은 꿈 용도변경 2045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2014-2018

- HOMELESS PROJECT 1—FALLING IN FLOWER ROAD
 SEOUL TALCHUM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 I WAS BULLIED
- 2018 SOUND TOUR
- THE FALLING BLOSSOMS

- DANCE OF REMEMBERANCE (SEWOL FERRY DISASTER)

- THE WHITE BOOK OF PROPAGANDA
 CHANGE OF PURPOSE 2017_YONGSAN MILITARY BASE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_CHEONG-PA DONG

- CONTEMPORARY CIRCUS BONGNJOULE
- SPIDERS

- TALE OF SAMULNORI

[2014]

- INSECT : TIME STOP, TO PASS TIME, AN INTENSIVE MEMORY
- CHANGE OF PURPOSE 2045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노숙 프로젝트 [- 꽃길에서 넘어지다

Homeless Project I - Falling on Flower Road

비주얼씨어터 꽇 VISUAL THEATER CCOT

+82.(0)10.2396.1020

namunun@hanmail.net



〈노숙 프로젝트〉는 노숙이 함의하는 유의미한 징후들을 연구, 리서치하여 공연미학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Homeless Project) is to study and research various significant signs of homelessness and materializing them as performance aesthetics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시각 예술적 재료와 연극적 재료 그리고 음악적 재료를 통합하여,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Visual Theater CCOT' is a visual theater company pursuing the presentation of productions combined with visual arts and various theatrical effects, with content ranging from the serious to the profound, and everything about human life.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서울탈춤

Seoul Talchum

서울괴담 SEOUL KEDAM

+82.(0)10.4157.7093

yybong2@hanmail.net



지금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과 광장이나 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함께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서울'을 고민하고 광장에서 동시대를 함께 하는 시민들을 만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기억, 욕망,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한다.

This project is to share the stories of our society and the public nature of our street and parks, with the spectators. In other words, it is to directly meet with the people of Seoul and communicate various problems, memories and desires through satire and humor.

극단 '서울괴담'은 현대도시의 터무니없는 현상들을 괴담의 형식으로 재조명하여 현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극단이다.

'Seoul KEDAM' is a theater company that spins absurd modern social issues as urban myth.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풍정 각(風情刻) 돈의문박물과마을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일일댄스프로젝트 11 DANCE PROJECT

+82.(0)10.4712.4997

11danceproject@gmail.com



일일댄스프로젝트는 리서치 기반의 도시공간무용 프로젝트 〈풍정,각(風 精,刻)〉을 2013년 이후 서울 곳곳에서 진행해왔는데, 2019년 프로젝트는 ' 돈의문박물관마을' 주제이자 대상으로 삼고자 2018년 리서치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하고 댄스필름을 제작했다.

Since 2013, 11 Dance Project conducted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here and there in Seoul, a research-based urban space dance project. For the 2019 project, the 2018 was planned and executed and a dance film was produced to make 'Donuimun, Open Creative Village' its theme

일일댄스프로젝트는 2004년 무용가 송주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문중심의 현대무용단체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11 Dance Project was founded in 2004 by Juwon Song. Since then, what used to be a modern dance group comprised of dancers from the same school grew into a community movement project group with artists from various genres.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정가악회 JEONG GA AK HOE

+82.(0)10.4102.9749

jgah@jgah.co.kr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것들〉은 사소한 일상에서의 기념일들부터 사회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환호의 순간들을 소환한다.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summons moments of acclamation in our trivial daily lives.

'정가악회'는 2000년에 창단한 전문국악단체이다. 가곡과 줄풍류, 판소리. 민요 등의 장르를 음악적 자산으로 하며, 국악의 서양화가 아닌 모범적인 현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eong Ga Ak Hoe' is an expert gukak group founded in 2000. They have set gagok, julpungryu, pansori and folk music as their musical asset and are making efforts to not westernize but modernize our music.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구십육퍼센트

NINTY-SIX PERCENTAGE

제너럴 쿤스트 GENERAL KUNST

+82.(0)10.2675.0504

generalkunst@gmail.com



우리가 자신의 몸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곧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아주 근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he way we perceive our body determines how we participate in the world. If we can accept our bodies as they are, it can be the very basis of accepting our differences.

'제너럴 쿤스트'는 2010년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2011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단체이다. 'General Kunst' began in 2010 in Berlin and took on various art projects with numerous experts in Korea since 2011.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어둠 속 환타지

Fantasy in the Dark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82.(0)10.4592.6376

charlye337@hotamil.com



거리예술의 관객 확장: 시각장애인과의 만남. 이번 작업을 통해 결과물이 아닌 과정 중심의 작업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리공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Street Art Spectator Expansion: Encounter with person with visual impairment. I plan to make various attempts to make a street performance that can be experienced by both people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와 장소특정형 공연형식의 작업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다.

'The Elephants Laugh' is a creative performing arts group for making performances based on the stories of a community and a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미스트; 촉촉함에 대하여

Mist; About Moistness

크리에이티브 라이프닥터 CREATIVE LIFE DOCTOR +82.(0)10.3176.5763

creativegroup.lifedoctor@gmail.com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삭막함과 메마름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잘 풀어내고 표현되어 이 창작물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e hope to unentangle and express the ways that can remedy and resolve the desolateness that we all very well know in this production

'크리에이티브 라이프닥터'는 고정된 시각과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적인 작품창작을 지향한다.

'Creative Life Doctor' is not bound by the rules of others. We are experimental. We are artistic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과거의 거리 미래의 거리

Past Street, Future Street

홍뿌앙 ROND-POINT

+82.(0)10.2087.9143

rond-point@hanmail.net



거리가 연극무대라면, 구호는 민중들의 대사다. 〈과거의 거리, 미래의 거리〉는 한국의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거리에 대한 의미와 역사, 사회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If the street is our stage, slogan is the words of the people. <Past Street, Future Street strives to study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our past and future streets.

'홍뿌앙'은 2017년 설립된 신생 단체로 불어로 '회전로터리'를 뜻한다. 거리예술 전문 기획사로 거리예술분야의 연구, 기획, 제작 등 거리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Meaning a round about in French, 'Rond-point' is a new street art agency founded in 2017. It handles various street art businesses from research, planning and production.

2018 창작지원 | 리서치지원

나는 왕따였다

I was Bullied

공연창작집단 사람 A PERSON;S

+82.(0)10.9368.1445

aperson_s@naver.com



과거의 '나'와 같은 현재의 '너'의 이야기이다. '너'라는 '나'는 무대 위에 있다. '나'는 사람이고 밧줄이다. 그런 나는 왕따였다.

It is about the past 'me' and the same current 'you'. 'I' am 'you' and 'I' am on the stage. 'I' am a person and a rope. I was bullied.

'공연창작집단 사람'은 신체연극과 서커스 기예 중 '밧줄'을 연구하는 '서상현' 이 창단한 단체이다.

'A PERSON;S' is a group founded by Sanghyeon Seo, who studies physical theater and 'rope', one of circus arts.

2018 창작지원 | 제작지원

거리극, 이동형공연 STREET PERFORMANCE

50min

해운대구 중1동 1258번지

1258, Jung 1-dong, Haeundae-gu

프로젝트외 PROJECT WAE

+82.(0)10.5779.5707

any5707@hanmail.net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이야기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인가? 너와 내가, 그들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바라보고 의논하며 살아가야하는 실제 세상과, 이제 떼어놓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SNS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서부터 이 작품은 시작된다. What am I talking about with who and how am I living? This work begin by asking the questions: 'Is this really a life with communication? How can we 'truly communicate' in the real world where you and I or you and we have to discuss in person and in a world where people cannot live without SNS?

'프로젝트외'는 '왜, 극장공간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작업하는가? (Why And Exterior)'라는 의문과 답안을 늘 상기하며 작업할 것을 기본 모티브로 2010년 젊은 배우들과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Project WAE' is a project group founded in 2010 comprised of young actors and dancers with the motif of asking the question of 'why work outside and not in the theater?

2018 창작지원 | 제작지원

장소특정형 공연 SITE-SPECIFIC PERFORMANCE

200min

2018 Sound Tour

2018 Sound Tour

하울링 HOWLING

+82.(0)10.3013.2315

morogadobae@gmail.com



'2018 Sound Tour'는 일시적 방문객인 관객들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는 과거의 도시개발과 현재의 도시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에서 하루 동안 펼쳐지는 듣기를 위한 탐색과정이다

'2018 Sound Tour' is a listening and searching process for spectators at the Donuimun Village that symbolically displays the urban regeneration of the past and now for the day

'하울링'은 2013년에 설립된 사운드/음악분야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국내 비주류인 장르의 활성화와 관심 있는 예술가 네트워크에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다.

Founded in 2013, 'Howling' is a group consisting of artists in the field of sound/music. Their efforts are helping to vitalize nonmainstream art genres and art networks.

2018 창작지원 | 제작지원

서커스 CIRCUS

60min

낙화

Falling Blossom

프로젝트 루미너리 PROJECT LUMINARY

+82.(0)10.2785.9458

projectluminary@gmail.com



〈낙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옴니버스식 구성을 통해 '낙화'라는 주제를 통해 각자만의 예술로 표현하는 기획공연이며, 5가지 다른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langle {\rm Falling~Blossom} \rangle$ is a planned omnibus performance produced by numerous young artists in various fields. It is comprised of 5 separate works

'프로젝트 루미너리'는 에어리얼 아트와 무용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배우의 새로운 신체움직임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Project Luminary' is a performance art group that discovers new bodily movements and possibilities based on aerial art and movement, and through them, endeavors to communicate with its spectators in various ways.

78 ___ 2019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____ **79**

2018 창작지원 | 제작지원

서커스 CIRCUS 20min

수직

Verticality

포스 FORCE +82.(0)10.3026.5205 hoya5205@naver.com



〈수직〉은 사회의 수직구조 속에서 중력(구조)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신입사원 이야기이다

'verticality' is a story about a fearless new employee who confronts the vertical hierarchical structure of our society

'포스'는 곡예를 비롯한 무용, 무술, 서커스 등 다양한 예술(art)과 미디어,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극을 시대에 맞게 융합 창작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 창작지원 장소 특정형 공연 SITE SPECIFIC PERFORMANCES

망각대스(세월호 편)

Dance of Remembrance (Sewol Ferry Disaster)

극단 신세계 DRAMA NEW WORLD

+82.(0)10.8484.0534

newworld_s@naver.com



망각 보이콧!? 깨어나라, 시민이여! 〈망각댄스 세월호편〉은 반복되는,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고자 한다. Never forget!? Wake up, Korea! (Dance of Re membrance Sewol Ferry Disaster play an ac rid caveat to Korea on its history of recurring injustice.

'극단 신세계'는 새로운 세계, 믿을 수 있는 세계를 만나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 시대가 불편해하는 진실들을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Drama New World' is a company of young artists in search of a new and honest world. It sheds light on truths shunned by the public through performances.

2017 창작지원 거리극, 이동형공연 STREET PERFORMANCE

선동백서

The White Book of Propaganda

극단 몸꼴 MOMGGOL

+82.(0)10.8448.7061

momggol@gmail.com

40min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격양되었는지 잊는다.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을 선동해주기를 바라며 선동당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In today's world, where social isolation is commonplace, we find ourselves desensitized but filled with pointless resentment. Maybe ones secretly wish and are waiting for somebody to manipulate

'몸꼴'은 창작집단 '극단 몸꼴'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몸꼴 상상력 훈련소', 문화예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이끔이 꼴'을 산하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omggol' is engaged in a variety of endeavors through Momggol the Dance Company, Momggol Imagination training Center, a link between people and locales, and Ggol the Cultural Compass, a culture and art production house.

2017 창작지원

장소 특정형 공연 SITE SPECIFIC PERFORMANCES

60min

용도변경2017 용산기지 Gate 22 오케스트라 땅의 노래 변주

Change of Purpose 2017_Yongsan Military Base Gate 22 Orchestra Variation of The Land

노노앤소소 ONO & SOSO

+82.(0)10.3915.6048

nonososo@daum.net



서울의 한복판 외래군의 영토로 사용되어 온 식민과 냉전의 상흔이 ' 무단침입금지'라는 경고문을 통해 은폐되던 100만 평의 땅의 귀환에 주목한다.

The middle of Seoul that had been claimed by foreign military forces for over a century, fraught with scars from the years of coloni zation and the Cold War, once sealed off with a stern warning, has returned to its rightful owners.

'노노앤소소'는 2004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사람, 공간, 예술'의 삼각구도를 고민하며 공공미술, 거리예술, 다원예술공연 등을 기획 제작했다.

Since 2004. They studied the 3 elements of people, space, and art through collaborations with artists of various genres and produced public paintings, street art, and pluralistic art performances in public locations.

2017 창작지원

거리극. 이동형공연 STREET PERFORMANCE 60min

풍정.각(風精.刻) 청파동 골목 낭독회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_Cheong-Pa Dong

일일댄스프로젝트 11 DANCE PROJECT

+82.(0)10.4712.4997

11danceproject@gmail.com



〈풍정.각_골목 낭독회〉는 '골목'이라는 창을 통해 도시인의 삶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정서와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

This play is against the backdrop of an alley way, sentiments forgotten in the urban life and a nostalgia surrounding alleyways.

일일댄스프로젝트'는 2004년 무용가 송주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문중심의 현대무용단체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Dancer Joo-won Song founded '11Dance Project' in 2004 and since expanded the initially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to a multigenre community movement project group.

2017 창작지원 거리극. 이동형공연 STREET PERFORMANCE 30min $4.9 \,\mathrm{m}^2$ 4.9 m² 창작집단 숨비 SUMBI +82.(0)10.3511.1728 so4860@hanmail.net



⟨4.9㎡⟩는 고시원의 대략적 크기이다. 안정된 삶과 꿈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하는 이 시대의 현실을 이 작품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 goshiwon room is about 4.9m2 in size. This piece symbolizes the reality of this age, in which many must give up for a stable life and a dream.

'창작집단 숨비'는 실험적 시도, 탈 경계, 공동 창작을 모티브로 극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새로운 공감각을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퍼포먼스 전문 단체이다.

'SUMBI' is a performance group that strives for new ways of synesthesia in a wide range of venues, including the theater, in the motif of experiment, boundary-beaking, and collective creation

2017 창작지원

거리극, 이동형공연 STREET PERFORMANCE

40min

불의 노래 프롬로그

Song of Fire_Prologue

예술불꽃 화(花.火)랑 HWARANG ART PYROTECHNICS

+82.(0)10.9991.9431

momggol@gmail.com



〈불의 노래〉는 아직까지 이어져오는 재래식 대장간을 배경으로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함께 끊임없는 담금질, 매질의 노동을 일삼는 대장장이의 모습을 담는다

With the traditional smithy as the background, the work life of a blacksmith, comprising working the furnace and incessant cooling and beating of metal is played out.

'예술불꽃 화(花,火)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불꽃공연을 통해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장르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HWARANG' Art pyrotechnics' tried to create various works that introduces countless symbolism of fire and flame. They are striving to make new forms of flame performance as their purpose is making people see the true value of flame as a performance art genre

2017 창작지원 서커스 CIRCUS 60min 몽환의 숲

Fantasy Forest

퍼포먼스팩토리 PERFORMANCE FACTORY

+82.(0)10.2354.4728

jh4728@naver.com



회사에 적응 못하는 신입사원, 그의 백수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을 위해 산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뜻 밖의 무리들을 만나 겪게 되는 신비롭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진다.

A circus band creates a small world with a chair and desk in which the happiness, anger, sadness, and joy of the modern people are ex pressed to form a sense of unity and deliver laughter and solace.

'퍼포먼스팩토리'는 인간 신체 그 자체의 순수한 가능성으로부터 구현되는 서커스와 아크로바틱을 기반으로. 신체의 리듬을 묘사하고 또 그것이 단순한 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이미지로 구현되어 관객과의 호흡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Circus acts and acrobatics, expression of the possibilities of the human body, are at the base of Performance Factory's performances, which do not stop at mere expression of the rhythm of the body and bodily feats, but emits an artistic image that breathes together with the audience.

82 ____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2017 창작지원 서커스 CIRCUS 60min

체어, 테이블, 체어

Chair, Table, Chair

팀퍼니스트 TEAM FUNNIEST

+82.(0)10.2078.4253

kinggo@hanmail.net



서커스 밴드가 들려주는 의자와 책상 앞 작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여 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웃음과 위로를 전달한다.

A circus band creates a small world with a chair and desk in which the happiness, anger, sadness, and joy of the modern people are expressed to form a sense of unity and deliver laughter and solace.

'팀퍼니스트'는 '가장 즐거운, 가장 재미있는'이라는 의미와 관객에게 '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 즐거움을 불러오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포함하여 항상 관객과 함께하며, 관객의 웃음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들어진 이름이다.

'Team Funniest' was named so as the group's pledge to be bring joy and laughter to its audiences.

2017 창작지원 서커스 CIRCUS 45min 칼의 시대 Age of the Sword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82.(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칼의 시대'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 분열을 초래하는 사회적 상황을 트램폴린, 검술과 무용, 서커스 움직임을 통해 칼을 든 현대인들의 삶으로 표현한다.

"The Age of the Sword" describes the age of conflict and conflict, and the social situation that leads to division as a life of modern people with swords through trampoline, sword and dance, and circus moves.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에서의 이미지/움직임을 기본으로 버티컬 퍼포먼스.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공중 퍼포먼스 등 융복합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Project NALDA' presents extraordinary shows that of fer unique experiences in vertical performance, crane based.

2016 창작지원

거리극, 이동형공연, 인형극, 오브제극

50min

45min

STREET PERFORMANCE, OUTDOOR PERFORMANCE, PUPPETRY, THEATER OF OBJECTS

고물수레

Grandma's Cart

마린보이 MARINEBOY

+82.(0)10.9186.0045

marineboycircus@gmail.com

+82.(0)10.3224.6294 juggling114@naver.com



〈고물수레〉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을 배우가 아닌 인형으로 그려내는 소박하고도 마음 따뜻해지는 공연으로, 관객들과 할머니의 만남은 차가운 도심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Grandma's Cart) uses a puppet to present an ordinary but poignant story of an old woman who collects waste paper. Meeting People and She are creating a new landscape amidst the cold night of a city.

세상은 날 광대라 하고, 난 세상을 무대라 한다!? '마린보이'는 서커스 기반의 광대로, 저글링과 코메디, 마임과 서커스 스킬 등이 결합된 공연을

Call me a clown and all the world's a stage! 'Marineboy' is a clown who offers unique experiences in juggling, comedy, mime and circus.

2016 창작지원

거리극, 가면극

STREET PERFORMANCE, MASQUE PERFORMANCE

나들이

Picnic

노마딕 시어터 NOMADIC THEATRE +82.(0)10.2790.5742 +82.(0)10.6665.5459 fubu4740@naver.com spkdyn@naver.com



〈나들이〉는 어느 한 할머니의 저승 가는 길을 한국적인 색을 입혀 유쾌하게

(Picnic) is the tale of an old lady/s journey into the afterlife. It tells a rather dark but enthralling story combined with Korean culture.

'노마딕 시어터'는 배우의 몸, 짓, 소리의 탐구와 오브제 연기의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우리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에 유쾌한 경험을 선사하며, 그들의 삶이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공연 창작 집단이다.

'The Nomadic Theater' is consistently devoted to studying a performer's body, gestures, sounds and object performance, the theater offers a unique experience to people, with the hope that they will find more value and happiness in their lives.

2016 창작지원 거리예술 STREET PERFORMANCE 60min 낯선자들의 거리 The Strangers' Street 낯선자들 THE STRANGERS +82.(0)10.7259.8075 strangers.lab@gmail.com



네 명의 인물들, 네 갈래의 길, 남대문 한복판의 주인 없는 집에서 시작되는

Four People and Four Different Journeys. The storybegins in an abandoned house in the center of Namdaemun

'낯선자들'은 시각, 소리, 신체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거리극의 장르적 범주를 확대하고, 장소와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용하는 방법적 실험과 관객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는 단체이다.

'The Strangers' actively seeks, through collaboration with visual, audio, and movement artists, to expand the boundaries of street performance. By doing so, it wants to deliver a new interpretation of existing venues and stories, to better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2016 창작지원	공동체 퍼포먼스	COMMUNITY PERFORMANCE	60min
마사지사			
Massager			
비주얼씨어터 꽃 CCOT	+82.(0)2396.10	20 namunun@hanmail	.net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당신, 당신을 안아주는 시간! 시민참여형으로, 참여한 모두가 인간의 나약함을 안아주고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Fragile Like paper. It's time to hold you in my arts! The participa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reflect on human fragility.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Visual Theater CCOT' is a performing arts group dedicated to visual theater, combining visual arts and performance.





〈물질〉은 거대 도시 서울에 투영된 사람들의 일상을 한발짝 떨어져 비춰보는 이동형 공연이다.

⟨MULJIL⟩ is an outdoor art performance which allows the audience to take a step back and think about their ordinary lives in the city.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와 장소특정형 공연형식의 작업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다.

'The Elephants Laugh' is a creative performing arts group for making performances based on the stories of a community and a space.

2016 창작지원	공간 이동형 퍼포먼스	OUTDOOR PERFORMANCE	40min
링더벨			
RING THE BELL			
조성아 SUNGAH CHO	+82.(0)10.4674.7901	cho-ssung@hotmai	Lcom



잊혔던, 잊히고 있는, 잊힐 수도 있는, 그 때, 그 곳에, 당신을 기억하는 이야기. 벨이 울리면, 현실 속 비현실, 비현실 속 현실이 뒤섞인 차원의 이동이 시작된다.

Forgotten, being forgotten, will be forgotten. A story of you at a certain place and time. When a bell rings, the audience is enchanted by things that are both real and surreal.

'조성아'는 찰나의 순간, 공간은 마법이 된다. 본래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광범위한 모든 공간(극장, 공공장소, 특정장소 등)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을 모토로 장르에 대한 경계가 없는 창작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The moment you step into the theater, you'll be enchanted

by splendidexperiences. Pursuing creative activities spanning all genre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and observing all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paces (theaters, public/specific spaces 2016 창작지원 야외국 OUTDOOR PERFORMANCE 40min 인왕산 호랑이 바위
Tiger stone in Inwangsan 극단 하땅세 HADDANGSE +82.(0)10.1600.8534 haddangse@hanmail.net



한국의 정서가 담긴 동화 이야기를 다양한 오브제들의 사용으로 시작부터 불특정 관객들의 시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거리연극이다.

This street performance uses various objects to interpret fairy tales with which most Korean people wold be familiar.

'극단 하땅세'는 1998년 각기 다른 예술적 배경을 가진 스페인과 브라질 국적의 멤버들이 결성하였다. 고전 줄 인형극으로 시작한 그들은 점차 신체 손, 발, 팔에서 얼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신체를 다양하게 이용하게 된다. 음악, 시, 유머를 가미한 이들의 공연은 다양한 전 연령대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Artists from Spain and Brazil founded this company in 1998. Starting as a marionette performance, they have used various body parts such as hands, feet, arms and face. Devoted to productions suitable for all ages, they blend music, poetry, and humor.

2016 창작지원 서커스 CIRCUS 70min
컨템포러리 서커스 봉앤줄
Contemporary Circus BONGNJOULE
봉앤줄 BONGNJOULE +82.(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서커스 기예 공연자 3명이 연극, 무용, 음악, 시각 장르의 연출과 함께 한자리에 선보이는 공연이다. Three Chinese pole and tight wire artists present a tetralogy of performances that blend theater with dancing, music and visual arts, with performances.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은 2016년에 창단되었고, 화려해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주목에 주목하고,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In 2016 founded 'BONGNJOULE'. The company is devoted to the presentation of high quality, self-crafted performances that artfully fuse human weakness with breath-taking stunts and other performing arts.





WEB in the CITY/CITY in the WEB

점점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만들 필요도 없는 단순한 기계와 닮아가는 인간 생태를 거미들에 비유해 퍼포먼스로 완성한다.

Our continuously—connected lives are more or less like a machine that does not need to think or feel. They uses spiders to represent people interconnected on the web.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에서의 이미지/움직임을 기본으로 한 버티컬 퍼포먼스,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공중 퍼포먼스 등 융복합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Project NALDA' presents extraordinary shows that offer unique experiences in vertical performance, crane based.

2015 창작지원 창작지원	장소특정형 공연 SITE-SPE	ECIFIC 60min
기억하는 사물들		
Things that Remember 2015		
창작그룹 노니 CREATIVE GROUP NONI	+82.(0)70.7011.7532	creative.group.noni@gmail.com



공간의 기억을 압축하여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물들. 관객들은 공간을 탐색하며 사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나간다.

Objects represent the stories of a certain space. This space leads the audience to create stories by enabling them to listen to the voices of objects.

'창작그룹 노니'는 전통연희, 미술, 음악 세 유닛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와 창작을 실험, 확장하여 다양한 창작작업을 하고 있다. 'Creative NONI' is devoted to presentations of experimental

selfcrated productions that blend with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ainting, and music.

88 ___ 2019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____ 89

2014-2018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2015 창작지원 | 창작지원 거리음악극 STREET MUSICAL 30min 닥터랄랄라의 이상한 병원 Dr. Lalala's Strange Hospital 음악당달다 UMDALDA +82.(0)10.3241.8881 umdalda@gmail.com



괴상한 코미디와 신나는 음악, 그로테스크한 키네틱오브제로 꾸며지는 수상한 의사와 간호사의 요절복통 메티컬 뮤직쇼!

The funny tale of a suspicious doctor and a nurse unfolds with the combination of ridiculous comedy, joyful music and grotesque kinetic objects!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공연단체들과 협업을 지속해온 이정훈. 연리목이 본격적인 음악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극단이다. 작품으로는 〈랄랄라쇼〉, 〈닥터랄랄라의 이상한 병원〉이 있다.

'Umdalda', by musical directors Lee Jung-hoon and Yeon Rimok, has actively sought collaboration with various performing artists to produce high - quality music performances. Its productions include 'Lalala Show' and 'Dr. Lalala's Strange Hospital'.

2015 창작지원 | 창작지원 장소특정형 보이스 퍼포먼스 40min SPACE-SPECIFIC VOICE PERFORMANCE 도시소리동굴 프로젝트 Voice Caves in the City 보이스씨어터 MOM소리 MOMSORI +82.(0)10.7225.2777 iiiin323@hanmail.net



도시 곳곳의 서로 다른 공명을 품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 이동하는 장소특정형 보이스즉흥공연. 전자음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 육성의 섬세한 울림과 그 힘을 느끼게 하는 이 공연은 마지막에 관객과 함께 하는 소리제의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원초성을 회복하려 한다.

'Voice Caves in the City' is a site-specific, improvised voice performance in spaces with various resonance. It offers a splendid experience to the audience through the powerful echo of voices as opposed to electronically - generated sound. The performance is joined by the audience at the end, leading them to reflect the loss of primitiveness.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는 2008년에 보이스퍼포머이자 보이스테라피 강사인 김진영이 창단한 단체이다. 목소리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재료이면서 치유적 재료라는 의식으로 독창적 미학의 보이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In 2008, Voice Theater Momsori was established by Kim Jin-young, who doubled as a voice performer and therapist. Strongly believing in the power of voice as a potent artistic and therapeutic tool, the company has been introducing self-crafted, extraordinary voice performances.





150년이 넘은 고려인 이주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의 모습과 애환을 거리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The 150 - year history of the Kareisky, ethnic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ir lives in Korea, unfolds through poignant street performances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몸짓을 찾아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협업을 해나가면서 장르의 파괴가 아닌 장르의 융합을 통해서 음악과 몸, 오브제의 만남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단체가 '모다트(Modart-modern art)' 이다.

'Modart' traces the history of Korean and modern movements. In partnership with various artists, the company, also known as 'Modart-Modern Art', pursues not destruction, but the fusing of various performing arts to present productions that blend music, body and objects.

2015 창작지원 창작지원	복합(이동형, 장소특정형, 거리	극)	40min
	COMPLEX (MOVING, SPAC	E SPECIFIC, STREET PERFORMANC	E)
멀리 있는 무덤			
A Grave Faraway			
극단 몸꼴 THEATRE MOMGGOL	+82.(0)10.8448,7061	momggol@gmail.com	



갈 곳 잃은 절망 속 행위 하지 못하는 행렬,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바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는 고찰과 새로운 무대 언어로 표현한다.

'A Grave Far Away' tells the tale of a parade of people who fall into despair and wind standing in their way. Based on serious interpretations and creative stage language.

'몸꼴'은 창작집단 '극단 몸꼴'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몸꼴 상상력 훈련소', 문화예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이끔이 꼴'을 산하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omggol' is engaged in a variety of endeavors through Momggol the Dance Company, Momggol Imagination training Center, a link between people and locales, and Ggol the Cultural Compass, a culture and art production house.

90 ____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2019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_____ 91

2015 창작지원 창작지원	복합 퍼포먼스 COMPLEX PERFO	RMANCE 20min
숨비- 물의 경계		
SUMBI - Border of Water		
창작집단 숨비 SUMBI	+82.(0)10.3511.1728	so4860@hanmail.net



3m높이의 물기둥 안의 수중움직임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 지는 시각적 호흡과 물기둥 밖 열린 공간에서 대금의 라이브 연주가가 만들어 내는 청각적 호흡이 어우러진 공감각적 이미지 음악 퍼포먼스이다.

'Border of Water' is a multisensory—image music performance that offers unique experiences in underwater movement inside a 3—meter water column, with the live music of a bamboo transverse flute, showcasing three—dimensional visuals with auditory breathing.

'창작집단 숨비'는 실험적 시도, 탈 경계, 공동 창작을 모티브로 극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새로운 공감각을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퍼포먼스 전문단체이다.

With a vision of experimentation, transboundarization and cocreation, Sum Bi is a performance group dedicated to presentations of multisensory productions suitable for not only theatrical stages, but other places as well,

2015 창작지원 창작지원	불꽃 거리극	PYRO-THEATRE D	E RUE	60min
길&PASSAGE				
GUILLE&PASSAGE				
예술불꽃 화(花,火)랑&까르나비흐	+82.(0)10.5	5536,9315	pyrohwarang@gma	nil.com
HWARANG ART PYROTECHNICS&CIE KARNAVIF	RES			



 \langle 길&Passage \rangle 는 삶에 담긴 수많은 여정을 이동형 불꽃극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프랑스 Karnavires와 공동창작/협연하였다. (2016안산,수원, 고양,Sotteville)

'Passage', co-produced and accompanied by Cie Karnavires in France, is a pyro-theatre de rue that tells the tale of various life journeys. (Sotteville 2016 in Ansan, Suwon, Goyang)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으로 Pyrotheatre(불꽃극)을 창작하는 단체이다.

The company is committed to high-quality pyro-theater productions based on countless symbols of fire and flame.





땅을 발판으로 노동을 일구며 삶을 영위해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가치가 살아 숨쉬는 농업의 리얼리티를 소재로 하고 있다.

The story is dedicated to people who lives by working on land and has Korea's traditional soul and value breathing within it.

'올웨이즈 어웨이크'는 공연기획자이자, 프로모터로 활동한 김연정 대표가 이끄는 팀으로, 해외투어매니저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한-프 합작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철의 대성당〉과〈내 땅의 땀으로부터〉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향후 한국과 해외와의 문화 교류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Always Awake' is a performing arts group led by Kim Yeon-jung, an event organizer and promoter. She has successfully launched joint Korea-France projects such as 'Cathedrale d'Arcier' and 'From the Sweat of My Land', and plans to present more projects for cultural exchange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2015 장작지원 국제교류	거리예술 STREET PERFORI	MANCE 50min
역:STATION:驛		
Station		
창작그룹 노니&프랑스 서커스 아티스트	+82.(0)70.7011.7532	creative.group.noni@gmail.com
CREATIVE GROUP NONI&FRANCE CIRCUS	ARTISTS	



파쿠르, 전통연희, 무술, 서커스로 훈련된 신체들이 도시 공간과 뒤섞이고 놓여지며 만들어내는 기억의 풍경들을 보여준다.

The Scene of memory made by the mixture an laying of bodies trained with Parkour, traditional theatrical performance, martial arts and circus with the city.

'창작그룹 노니'는 전통연희, 미술, 음악 세 유닛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와 창작을 실험, 확장하여 다양한 창작작업을 하고 있다.

'Creative Group NONI' is devoted to presentations of experimental self-crated productions that blend with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ainting, and music.

2015 창작지원 | 국제교류 서커스음악극 CIRCUS MUSICAL PERFORMANCE 70min 사물이야기 Tale of Samulnori 아시아나우&렉스온더월 +82.(0)10.6474.6582 producergroup,79@gmail.com ASIANOW&LEGS ON THE WALL



〈사물이야기〉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서커스음악극으로 꽹과리, 북, 장구, 징 네 악기의 상징성, 동서남북 사방신과 오방색을 모티브로 한 신화 이야기이다.

The 'Tale of Samulnori' takes the form of a modern circus music performance that tells the tale of a myth based on four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a Kkwaenggwari, a Jing, a Janggu and a Buk, guardians of the directions and five cardinal colors.

'아시아나우'는 2005년 창단된 단체로, 한국과 아시아의 현대 연극을 해외진출, 국제공동제작 그리고 국제 창작 레지던시와 워크숍을 통한 창작 개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Founded in 2005, Asia Now has worked hard to introduce Korean and Asian plays to global audiences and present creative productions through cooperation with overseas artists, international creative residencies and workshops.

2014 창작지원	불꽃극 FIRE SHOW	40min
꽃을 피우는 무대〈화산대〉		
Blossomy Scene (HWASANDAE)		
예술불꽃 화(花,火)랑 HWARANG ART PYROTECHNICS	+82.(0)10,5536,9315	pyrohwarang@gmail.com



꽃을 피우는 무대 〈화산대〉는 사라진 우리 공연문화의 중심이었던 화희와 화산대를 예술불꽃화랑만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려낸 작품이다.

The Blossomy Scene (Hwasandae) uses pyrotechnics, the most preferred theatrical effect, to showcase imaginary, mind-blowing shows.

'예술불꽃 화(花,火)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으로 Pyrotheatre(불꽃극)을 창작하는 단체이다.

This is a performing arts group dedicated to 'Pyrotheatre' production with the symbolic power of fire and flame.





〈단디우화〉는 중력을 거스르며 자유롭게 벽을 오르내리는 정체불명 유충들의 좌충우돌 이야기이다.

The story of hilarious, gravity-defying caterpillars climbing up a

'창작중심 단디'는 인간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과 새로운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바람을 하늘을 무대로 시를 그리는 버티컬 퍼포먼스 단체이다. Creative Center Dandi is a vertical performance group that illustrates the human dream of flying and going on a journey to a new world, against the background of an enchanting sky.

2014 창작지원	페인팅 퍼포먼스, 거리극 PAINTING PERFORMANCE, STR	REET PERFORMANCE	30min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The Wall			
비주얼씨어터 꽃 CCOT	+82.(0)10.2396.1020	namunun@hanmail.net	



(예)술에 취한 사람이 담벼락에 대고 토해내는 환상의 페인팅 퍼포먼스! 거대 담벼락, 몸, 페인팅, 물 그리고 빛과 제3세계 악기소리들이, 우리를 원초적 내면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A drunken artist leads you to embark on an amazing journey to an imaginary painting show! A gigantic wall, a body, a painting, water, and third - world instruments are all inviting you to an instinctive. inner world.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시각 예술적 재료와 연극적 재료 그리고 음악적 재료를 통합하여,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Visual Theater CCOT is a visual theater company pursuing the presentation of productions combined with visual arts and various theatrical effects, with content ranging from the serious to the profound, and everything about human life.

2014 창작지원 거리극 STREET PERFORMANCE 30min

벌레 : 멈춘 시간, 흐르다 Insect: Time Stop, To pass

배낭속사람들 PEOPLE IN BACKPACKS

+82.(0)10.6694.0448

21hunt@naver.com



일 벌레처럼 변해 버린 현대인의 또 다른 모습을 신체의 움직임과 오브제로 표현한다. 차갑게 사라져가는 인간성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 원초적인 동물적 본능의 태동으로 다시 태어난다.

'People in Backpacks' uses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objects to follow the life of modern people transformed into an insect. The brutal loss of humanity can be reborn by water, a source of life, and animal instinct

'배낭속사람들'은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주 재료로 한다. 최소의 텍스트로 신체, 움직임, 도구(오브제), 마임, 이미지를 활용하며 총체적이고 은유적이게 표현하여 극으로 만들어간다.

'People in Backpacks' uses social issues and events that affect people's lives and the environment as the content of its performances. Its preferred performing tools include body movement, objects, mime and images, to tell stories in a metaphorical way.

2014 창작지원 공중퍼포먼스 MIDAIR PERFORMANCE 30min

시간, 기억의 축적

Time, an intensive memory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82.(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공간에 설치 된 8미터 높이의 대형 모래시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는 사운드로 축적되어 모래시계 안 혼재된 시간과 퍼포머들을 움직인다. 사운드, 설치, 자동화시스템, 공중퍼포먼스가 결합된 융복합 공연예술이다.

These stories of mix-ups in history are delivered by performers against a gigantic, 8 - meter sand glass. 'Time, an Intensive Memory' artfully blends music, installation, automatic systems and aerial performances.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 공간에서의 예술 콘텐츠를 개발한다. 건물외벽 버티컬(Vertical) 공연,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공중 공연을 비롯해 서커스 공연도 제작 중이다

'Project Nalda' is a performing arts group dedicated to aerial performance development. It has taken high-quality, self-crafted vertical, crane-utilized aerial performances and circus to a variety of stages.



아주 작은 꿈

A Little Dream

프로젝트 잠상 PROJECT JAMSANG

+82.(0)10.3868.8451

projectjamsang@gmail.com

한 여자의 아주 작은 꿈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 화학 전쟁 이후의 오염된 도시를 모티브로 하여, 정상적인 인간이 도리어 낯설게 느껴지는 불안한 미래를 기묘한 익살로 형상화한 미디어 퍼포먼스 A different world inside a woman's dream 'A Little Dream' is a poignant, joyful and humorous media performance about a woman's

> 공간과 사물에 잠재되어 있는 형상을 이끌어내는 미디어-설치 퍼포먼스 그룹이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 지금은 사라진 것들을

experiences in a world where familiar people become unfamiliar.

'Project Jamsang' is a media-installation performance group bringing subsurface images of spaces and objects up to the surface. It is dedicated to finding faded values in things that no longer exist.



뒤쫓는다

용도변경 2045

Change of purpose 2045

노노앤소소 NONO & SOSO

+82.(0)10.3915.6048



〈용도변경 2045〉는 거리예술의 무대와 창작의 메카로 용도변경 중인 구의취수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명하는 장소 특정형 작품으로, 텍스트 설치작, 대형벽화, 미디어퍼포먼스로 구성된다.

nonososo@daum.net

(Change of purpose 2045) is a site specific artwork developed in the former Gueui pumping station of Seoul, recently transformed into the main center for the street performing arts. It's made up of installation, big scale wall drawing, multimedia performance.

'노노앤소소'는 공간, 예술, 사람의 역학관계,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의 역할, 개입의 방식과 그 결과로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며 예술의 대안적 모습을 탐색한다. 전시 공연 거리예술 외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Recognizing the dynamics between space, the arts and people, and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art in public places, with the resultant publicness 'Nono & Soso' explores alternative art to introduce, not only street performances, but other types of projects as well.

부록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안내

APPENDIX

INTRODUCTION OF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10

개관일 2015년 4월 24일

시설현황 제 1취수장, 제 2취수장, 야외마당, 염소투입실 아뜰리에, 관사

문의처 02-3437-0099

운영사무실 월~금요일 9:00~18:00(주말 및 공유일 휴관)

Location 710 Achasan-ro, Gwangjin-gu, Seoul

Opening date April 24, 2015

Facilities Water intake station 1, Water intake station 2, Open-air space, Atelier, Residence

For more information call +82-2-3437-0099

Opening hours Office Mon.~Fri. 9:00~18:00(Closed on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제 1취수장 메인홀 WATER INTAKE STATION 1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뚫려있는 박스형 건물로 대형작품 연습이 가능한 메인홀과 세트 및 차량반입구가 있습니다. 거리예술 및 서커스에 관한 국내외 주요 자료(서적, 리플렛, DVD등)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및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다.

The box—shaped building, open all the way up from the B1 level to a 2—story height, houses the main hall available for practice for major performance shows as well as the delivery hatch for sets and equipment, It also has a reference room and multimedia room where people can read or watch numerous reference materials (books, leaflets, DVDs, etc.) on street arts and circus.



제 2취수장 연습실 WATER INTAKE STATION 2

예술가들의 실내 연습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This is a place for rental for the purposes of indoor practice, education, etc.





Total Area **17,838m²**

제 1취수장 Water intake station 1

연면적(Area) 2,709.26m² 메인홀(Main hall) 579.6m² 높이(High) 12m

제 2취수장 Water intake station 2 연면적(Area) 1,316.11m²

연면적(Area) 1,316.11m² 연습실(Practice room) 168m² 높이(High) 2.7m



야외마당 OPEN-AIR SPACE

야외 공연 연습을 위한 공간입니다. The outdoor yard is intended to support practice for outdoor performances,





아뜰리에 ATELIER (CHLORINATION ROOM)

공연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목/철공 제작소입니다.

A space for wood and ironworks for perfor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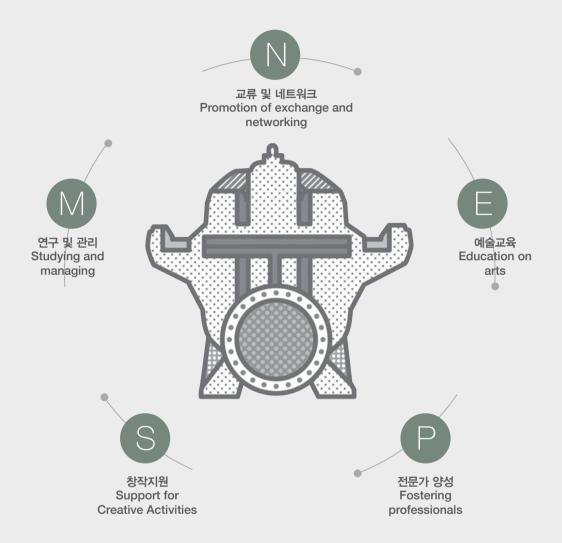
레지던시 RESIDENCE

국내외 예술가 호스텔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총 8개의 방과 카페테리아, 다목적룸, 워크숍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 hostel and community space, consisting of 8 rooms, cafeteria, multi-purpose room and workshop room.

높이(High) 4.5m











창작지원

- 작품이 연중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발표 공간 (국내외 축제 및 도심의 공공 공간)에서 공연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 예술 작품 발굴 및 제작 지원
- 국내 컨템포러리 서커스 장르 육성 및 창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서커스 또는 서커스와 연계한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개발 및 창작 지원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 The center offers an environment where artworks can be created throughout the year, and finds and supports the production of street arts that can be performed as public art at numerous performance spaces(e.g., festivals in and out of Korea and public venues downtown).

전문가 양성

- 서커스 저변확대 및 서커스 예술가 개발·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과 거리예술 예술가 대상 재교육 및 신진 예술가 양성과정 운영

Fostering professionals

- To expand the basis of the circus and develop and educate circus artists, the center offers courses on fostering professionals, re-education of street artists and finding and developing new artists.

예술교육

- '생활 속의 서커스'를 위한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서커스예술놀이터〉운영
- 일반인 대상 거리예술 아카데미(이론, 실무) 과정 운영

Education on arts

- The center's "Circus Art Playground" is an arts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to realize "circus in everyday life."
- Academic courses(theory and practice) on street arts are also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교류 및 네트워크

-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창작 및 배급의 활성화, 전문가 양성과정의 다변화, 실용적인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운영

Promotion of exchange and networking

- The center promotes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street arts and circus, offers diverse courses on raising professionals and operates exchange projects in and out of Korea to share practical information.

연구 및 관리

- 거리예술 및 서커스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
- 거리예술 관련 연구 및 비평 작업

Studying and managing

- The center studies the theories of street arts and circus and builds related
- Research and critiques related to street arts.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9 거리예술 ·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후

기획운영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발행일 2020.01

디자인 ㈜플렉엠 02-6205-7100 **사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으며,

출판물 내 이미지 및 관련자료를 사용할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201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517 Cheonggyecheonno, Dongdaemun-gu, Seoul

IEL. +82-2-3290-700

www.sfac.or.ki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710 710 Achasan-ro, Gwangjin-gu, Seoul, Korea

TEL. +82-2-3437-009

facebook.com/SeoulStreetArtsCreationCente